

리아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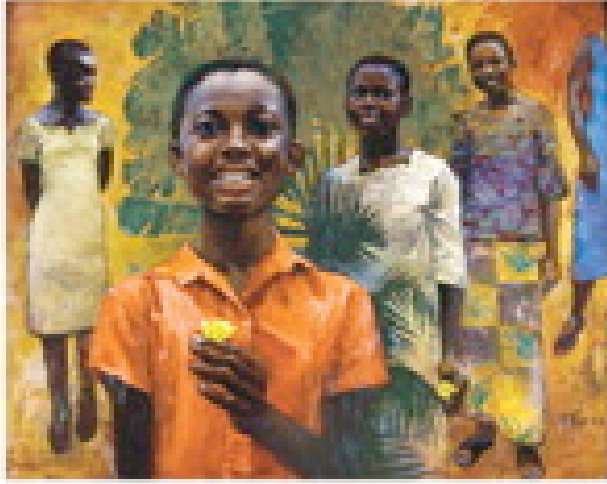
가나의 개척자들, 12쪽

경전에 생명을 불어 넣기, 16쪽

우리의 정직함은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26쪽

줄리아가 발견한 방문자는
투명인간과 다를 바 없었다, 친8쪽





아 프리카의 가나에는 노바, 베라, 조지나, 캐런, 그리고 레베카와 같이 교회의 개척자 역할을 하는 회원들이 있다. 가나에 있는 후기 성도들의 그림과 이야기들을 보려면 12쪽 “가나의 개척자들”을 참조한다.



성인

2 **제일회장단 메시지**
사탕무, 그리고 영혼의 가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25 **방문 교육 메시지**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의식에 참여하십시오

6 **특집 기사**
조셉 스미스 기록 모음집: 계시 원고의 책
말린 케이 젠슨 장로
“조셉 스미스 기록 모음집 프로젝트” 연속 기획물을 통하여 어떻게 선지자가 새로운 계시를 통해 가르침을 받았는지를 알아본다.

12 **가나의 개척자들**
아프리카 가나 지역에 있는 후기 성도 개척자들의 그림과 그들의 이야기

16 **삶의 본보기가 되는 경전의 일화들**
제이 이 젠슨 장로
이 경전 공부 방법을 통해 “옛날 저기서 그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여기 나에게” 적용해 본다.

33 **표준: 하나의 사이즈,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
데비 트위거
몇몇 성인들은 키가 크고 성인이 되더라도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찾을 수 있는 권고와 축복이 여전히 그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43 **특집란**
후기 성도의 소리
다툼과 불화를 극복해 내기, 가정에 조금 더 천국과 같은 분위기를, 어린이들을 영적 및 현세적으로 돕기, 아빠에게 드리는 성전에 오시라는 권유, 재정적인 근심에서 평안을 찾기

48 **이번 호 활용하기**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기억에 남는 가정의 밤, 이번 호의 주제들

표지

앞: 에스더 아두 아산테리차드 헐 그림,
뒤: 청녀들-노바, 베라, 조지나, 캐린, 레베카,
리처드 헐 그림, 지도: Mountain High Maps
© 1993 Digital Wisdom, Inc.

청소년

22 **특집 기사**
최하단에서 최정상까지 돈 엘 설
청녀인 조셀린 카브레라는 큰 잠재력을 지닌 재능 있는 미술가요, 음악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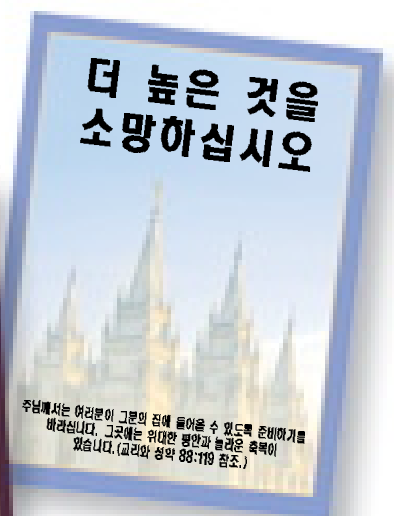
26 **정직에 대한 시험**
패트리샤 에이 제이콥스 및 프란시니 프레센차
제 친구는 정직이 시험 성적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요?

28 **정숙함: 우리 모두를 위한 시대를 초월한 원리**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우리의 삶이 정숙의 미덕에 의해 조절되고 절제될 때 우리는 좀 더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38 **항상 노력하십시오** 옥타비아노 테노리오 장로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그저 노력하고, 집중하며, 행복하면 된다.

36 **특집란**
짧은 메시지
근심에 찬 선교사가 평안을 위해 드린 기도, 한 청년의 삶을 바꿔 놓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프로그램

42 **포스터: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으십시오**





샌드리지를 건너 제레미 윈보그

1859년 이제 막 결혼한 로버트 톨리와 애니 브라이언 톨리가 유타 북쪽 지역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서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먼 길을 가고 있었을 때, 샌드리지라 불리는 지역에서 소 한 마리가 힘이 빠져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다. 로버트는 건강한 나머지 한 마리의 소와 함께 땅을 나누어 지고 32 킬로미터를 나아갔다. 결국 그들이 먼 요새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남은 음식이라고는 사탕무뿐이었고, 톨리 부부는 그것으로 그해 겨울을 연명하였다. (역자 주: 당시 초기 성도들은 브리검 영의 지시에 따라 유타와 솔트레이크 지역을 떠나 근방의 여러 곳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기 시작했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기 위해 요새를 세웠다. 초기 성도들은 대부분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먼 길을 여행하여 요새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요새의 상황 역시 그리 좋지 않았다.)

2009년 7월호, 제46권, 제7호
리아호나 04287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제일화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심사도장: 보이드 케이 페커, 엘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앨런 에이치 옥스, 엘 러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앨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스펜서 제이 곤디
고문: 게리 제이 코울먼, 케네스 존슨, 요시히코 기쿠찌, 더블류 더글라스 썬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레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아담 시 올슨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보조 편집인: 수잔 배렛

편집 스태프: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튼, 라렌 포터 곤트,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엘리사 메릴, 마이클 알 로리스, 샬리 제이 오데카르, 주디스 엠 팔러, 조슈아 제이 퍼키, 채드 이 패리스, 켄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롬니, 돈 엘 설,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델
선임 비서: 로벨 튜셔

관리 미술 책임자: 엘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 밴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엘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켈리 알 아로요, 클레타 네베코 우온,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치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킴 핀스타머카,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버, 스킵 엠 우이, 지니 제이 날스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

배부 책임자: 렌디 제이 맨스

통 권: 제517호, 제46권, 제7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9년 7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 동 환

편집인: 박 승 호

번역 책임자: 조 현 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의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의도(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 친판 혹은 지사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리투아니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산할라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카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타이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09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July 2009 Vol. 33 No. 7.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어린이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헨리 비 아이어링 회상

친8 특집 기사
투명인간과 다름없는 방문자 하이다 피피퍼

친11 서부 이동

친4 특집란
함께 나누는 시간: 우리 가족은 강해질 거예요
쥬얼 에스플린

친6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친12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선지자의 음성

친14 친구가 친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과 노래

마이클 존 유 테 장로

친16 색칠하기



친구들 표지
삽화: 짐 매드슨



이번 호에 숨겨진
한국어 정의만 반지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의를
택하듯이 올바른
페이지를 선택해
보세요!



애독자 편지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매달 리아호나를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사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와 그 밖의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을 전해 주는 연차 대회 특집호 덕분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여기에 실린 기사들은 가정의 밤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저는 리아호나에서 청소년을 위한 기사들을 제일 먼저 찾아봅니다. 이 기사들을 읽을 때마다 안전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는 기분이 듭니다.

카리나 차베즈, 니카라과어

극복할 수 있는 힘

저는 리아호나를 제 삶의 지침으로 삼습니다. 이 잡지를 통해 동시대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으며 저와 똑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봅니다. 그 사람들의 경험이나 일화를 저의 영적 말씀이나 가정의 밤에 인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제 친구는 리아호나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지만 복음이 이를 극복할 힘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애나 펠리니, 영국

의견이나 제안은 liahona@ldschurch.org 로 보내 주십시오. 내용은 길이나 명확성을 위해 편집될 수 있습니다.



사탕무, 그리고 영혼의 가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감리 감독단 보좌로 봉사하신 마빈 오 애쉬튼 감독님(1883~1946)여러 해 전에 제게 들려 주신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머릿속에 그려 보십시오. 한 농부가 사탕무가 가득 실린 트럭을 타고 설탕 정제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트럭이 울퉁불퉁한 흙 길 위를 달리면서 트럭에 실린 사탕무가 갈라 여기저기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탕무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농부는 그를 돕는 인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길바닥에 떨어진 사탕무에도 트럭에 있는 것과 똑같은 설탕이 들어 있다네. 자, 다시 돌아가 떨어진 것들을 주워 담으세!”

이 일화에서, 사탕무는 지도자로 부름 받은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교회 회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트럭 밖으로 떨어진 사탕무는 어떤 이유로든 간에 교회에서 멀어지게 된 성인 남녀 및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의미합니다. 사탕무를 보고 농부가 한 말을 조금 바꾸어, 저는 우리 아버지와 주님께 여전히 소중한 존재들인 이 영혼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저기 길을 벗어난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소중하다네. 자, 다시 돌아가 그들을 데려오세!”

오늘날 바로 이 순간에도 그들 중 일부는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이라는 급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고된 삶과 힘든 세상살이의 거친 물살에 휩쓸려 갔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죄의 소용돌이 속으로 가라앉아

익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교리가 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단순히 모임을 갖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봉사는 영혼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 영혼을 구함

주님은 모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청소년과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을 기억하라 ...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너희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 내게로 데려온 한 영혼과 함께 누리는 너희의 기쁨이 클진대, 너희가 많은 영혼을 내게로 데려오면,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교리와 성약 18:15~16)

여러분은 이 사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이 특별한 직책에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안내나 인도도 없이 그저 운에만 의존하며 혼자 견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사탕무는 지도자로 부름 받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교회 회원들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영혼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저기 길을 벗어난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소중하다네. 자, 다시 돌아가 그들을 데려오세!”

리

차드는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은 감독님이 정비 구덩이에 숨어 있는 자신을 찾아내어 다시 활동화되도록 도와주었던 바로 그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장점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의 헌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앞서 나아 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교리와 성약 84:88)

초등회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봉사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알고 계십니까? 청년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청년들을 알고 계십니까? 아론 신권 지도자 여러분, 청남들을 알고 계십니까? 상호부조회와 멜기세덱 신권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이 돌보도록 부름 받은 자매들과 형제들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의 문제나 난처한 상황, 그들이 바라는 바와 포부와 소망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 왔는지, 그들이 어떤 괴로움을 겪어 왔으며 어떤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 어떤 슬픔을 감내해 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들은 더 이상 아무도 걱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는 “무관심의 광야”에서 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삶을 대궐이나 궁궐에 사는 것처럼 운택하게 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의 손길을 내밀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참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봉사하는 자들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가슴 속에 새겨진 가르침

노력하는 가운데 혹시 낙담을

하게 된다 해도 주님의 시간표가 항상 우리의 것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래 전에 제가 감독이었을 때, 청년 지도자들 중 한 명이었던 제시 콕스라는 자매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저는 실패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 자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한 명도 성전에서 결혼하게 하지 못했어요. 훌륭한 교사가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제 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었나 봐요.”

저는 감독으로서 그녀가 최선을 다했음을 안다고 말해 주었고, 그 자매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그런 후 자매가 가르쳤던 청년들을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결국은 모두가 성전에서 인봉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가슴 속에 한 번 새겨진 가르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시 콕스 자매와 같은 충실한 종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모든 지도자들이 참된 목자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된 목자는 우리의 위대하고 선하신 목자의 지시에 따라서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사랑하는 양들을 인도하고 아끼며 돌보는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요한복음 10:2~4 참조)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을 찾아서

감독으로서 경험한 일화를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저는 와드 제사들 중에서 자주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리차드가 또 신권회 모임에 오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청남 고문에게 정원회의 진행을 맡기고 리차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리차드의 어머니는 리차드가 근처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그 정비소로 가서 리차드를 찾아보았지만 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저는 건물 옆 쪽에 자동차 하부를 정비하기 위해 사람이 들어가는 움푹 패어 있는 구덩이 안을 들여다보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어두운 구덩이 속에서 두 개의 반짝이는 눈이 보였습니다. “저를





찾아내셨네요, 감독님. 나갈게요”라고 말하며 리차드가 나왔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우리가 그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가 필요한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임에 참석하겠다는 그의 확답을 듣고 왔습니다.

리차드의 교회 활동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리차드와 그의 가족은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후 저는 리차드의 워드 모임에서 그가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에 말씀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날 리차드는 영적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은 감독님이 정비 구덩이에 숨어 있는 자신을 찾아내어 다시 활동화되도록 도와주었던 바로 그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돌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어루만지고 손을 내밀어야 할 책임과 신성한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해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것 역시 우리의 의무입니다. 지도자가 입어야 하는 겹옷은 안락한 망토가 아니라 책임감의 성의라는 점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구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에 성공을 거두면서 여성과 남성, 그리고 소년과 소녀를 교회로 데려와 다시 활동화시키게 될 때 그것은 한 아내의, 동생의, 어머니의 간절한 오랜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이 되며, 남편과 형제와 아버지의 오랜 소망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행하고 그 순종하는 아들의 모범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26, 교리와

성약 59:5 참조) 그리고 우리가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은 영원히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봉사하며 그들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그분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제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공부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면서 메시지를 나눈다. 다음에 제시된 몇 가지 예를 따를 수 있다.

1.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을 찾아서” 부분을 읽는다. 리차드가 정비 구덩이 속에 숨어 있을 때의 모습이 어땠을지를 어린 자녀들에게 묻는다. 그리고 리차드가 선교사로 나갈 때의 모습은 어땠을지를 또한 묻는다. 가족들에게 다음 질문을 한다. “감독이 리차드를 찾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 교리와 성약 18편 10절, 15~16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한다.

2. 메시지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바닥에 동전 몇 개를 떨어뜨린다. 그리고 “저에게 동전을 줌은 일이 중요할까요? 왜 그럴까요?”라고 묻는다. 동전을 주우면서 사람은 동전보다 무한히 더 가치 있는 존재임을 설명한다. 사탕무 이야기를 전한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시 활동적이 되도록 “마음의 손길을 내밀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토론한다.



Joseph Smith

— 목회 — 기록 — 모음집 — 계시 기록 보관소

계시의 책 필사본은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들의 가장 초본이라고 알려진 원고들과 계시를 받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린 케이 젠슨 장로
철십인 정원회
교회 역사가 및 기록가

19 70년대부터 후기 성도 학자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삶과 업적에 관련된 문서들을 수집하고 이를 대중에 공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셉 스미스 기록 모음집 프로젝트는 수십 년에 걸친 수고의 결과물입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자들은 조셉 스미스가 직접 썼거나 타인에게 기록하도록 지시한 모든 종류의 기록 매체를 수집하고자 노력했고, 여기에는 일지와 일기, 서한, 설교, 계시, 역사 기록, 공문 및 법적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조셉 스미스 기록 모음집은 30여 권 분량의 책으로서 2천 여개 이상의 문서들을 담게 될 것입니다. 각 책들은 기록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문서, 역사, 일지, 행정 기록, 법적 및 업무 자료, 그리고 계시 및 번역 등의 여섯 부분으로 나뉘어 나갈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 기록

모음집은 학자들 또는 기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 자료들을 직접 다루지 않고도 손쉽게 읽을 수 있는 사본(활자 인쇄본)을 제공함으로써 훼손되기 쉬운 사료의 파손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필사 원고는 수기로 표기된 텍스트들이 정확히 옮겨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학문적 표준에 의거한 삼 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셉 스미스를 연구하는 이들은 이 역사 자료들, 특히 최초 원본 형태의 자료들을 통하여 선지자의 삶과 회복된 교회의 발전에 대한 한 층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 기록 모음집은 또한 심도 있는 역사 고찰 과정을 좀 더 용이하게 해 줄 것입니다. 그 동안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었던 각종 사료들, 즉 교회가 수집해 온 각종 문서들을 비롯하여 대학교, 역사 단체 및 개인 수집가들이 보관 중이던 문서들이 출판 과정을 거쳐 여러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인터넷 상에 게재될 것입니다. 이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통해 중요한 학문적 가치를 지닌 많은 자료들이 수집되었으며, 여기에는 그 동안 학자들조차도 다른 방법으로는 접할 수 없었던 많은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 기록 모음집은 조셉 스미스와 초기 교회 역사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 기준과 그 정확성을 한 단계 높여 줄 것입니다.

계시 및 번역 시리즈

“계시 및 번역” 시리즈에 해당하는 책들에는



조셉 스미스를 연구하는 이들은 이 역사 자료들, 특히 최초 원본 형태의 자료들을 통하여 선지자의 삶과 회복된 교회의 발전에 대한 한 층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30년 교회가 조직된 후 선지자의 우선 과제들 중 하나는 그가 받은 계시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래: 계시의 책 제 1권. 오른쪽 위: 계시의 책 제 2권. 오른쪽 아래: 계시의 책 초판.

조셉 스미스가 쓴 계시와 번역문의 최초 원고 사본이 실릴 것이며, 이와 아울러 그의 생전에 이 원고들이 출판될 때 사용되었던 공식판도 곁들여질 것입니다. 이러한 출판물에는 물문경 초판(1832년),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를 모은 첫 번째 출판물(A Book of Commandments, 계명의 책, 1833년), 그리고 교리와 성약 초판(1835년)등이 포함됩니다.

1830년 교회가 조직된 후 선지자의 우선 과제들 중 하나는 그가 받은 계시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더 심도 있는 기록 작업은 1832년이 되어서야 시작되었지만 조셉 스미스와 존 휘트머는 1830년 여름에 선지자가 그 시점까지 받았던 계시를 한 곳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존 휘트머는 늦어도 1831년 3월경에는 이 초기의 계시 원고들을 옮겨 적기 시작했고 이를 "Book of Commandments and Revelations(계명과 계시의 책)"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조셉 스미스 기록 모음집의 편집자들은 이 책을 계시의 책 제 1권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이 필사본에는 1831년 3월부터 1835년 중순까지의 기간에 기록된 자료의 사본이 담겨 있습니다.

1831년 11월 오하이오 주에서 교회 특별 대회가 열리는 동안 존 휘트머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수집된 계시를 출판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들은 이 "계명과 계시의 책" 원고를 미주리 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와 함께 계명의 책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교리와 성약 6:7편 참조) 1832년 초에 미주리 주에서 출판된 이 첫 번째 계시 기록의 책과 더불어 조셉과 그의 서기들은 계시를 옮겨 적은 또 하나의 책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책은 "Kirtland Revelation Book(커틀랜드 계시의 책)"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조셉 스미스 기록



모음집 편집자들은 이 책을 계시의 책 제 2권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책은 1832년 2월 말 또는 3월 초부터 기록되기 시작해 1834년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계시 및 번역 시리즈의 1권은 이 두 가지 계시 원고의 필사본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 기록 모음집 프로젝트의 학자들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계명과 계시의 책"이 1833년에 출판된 계명의 책의 주된 근원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계명과 계시의 책"과 "커틀랜드 계시의 책" 두 권 모두가 1835년에 출판된 교리와 성약 초판의 근간이 되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필사본들은 교리와 성약이 출판된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 밖의 교회 기록들과 함께 안전하게 보관되어 왔습니다. 이후의 계시들은 조셉 스미스의 일지와 기록의 책들에 기록되었으며, 감독, 사도 및 기타 개인들의 문서에도 기록되었습니다.



1835년 교리와 성약이 출간된 뒤로는 출판된 자료들이 널리 보급되었기에 이 두 권의 필사본들은 거의 잊혀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학자들은 조셉 스미스의 계시 초기 필사본의 연구와 조사에 강한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2002년 *Selected Collections from the Archives*(**로 저장실 선별 자료 모음**) DVD 자료¹의 일부로 필사본 원문의 화상 자료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계시의 책 제 2권의 내용은 쉽게 접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제일회장단의 소유에 있던 계시의 책 제 1권 역시 최근에 와서야 학자들에 의해 그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계시의 책 제 1권에는 많은 계시의 최초 원본으로 알려진 원고들이 담겨 있으며, 어떤 계시들은 현존하는 유일한 초기 원고이기도 합니다. 이 원고들은 또한 교회 정기 간행물이었던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의 첫 번째 호에 실렸던 계시들의 출처이기도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인가 그 책에서 누락된 네 장의 종이는 현재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 소재 그리스도 공동체(구 복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자 주) 도서관 및 자료 보관소의 소유이며 허가를 얻어 조셉 스미스 기록 모음집에 게재되었습니다.

계시의 책 제 1권, 즉 계명과 계시의 책은 초기 계시의 거의 대부분을 모아 놓은 포괄적인 집합체입니다. 거기에는 1833년에 출판된 계명의 책²에 나와 있는 65개의 계시들 중 64개가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1835년에 출판된 교리와 성약의 총 103편 중 95편이 실려 있습니다. 이 계명과 계시의 책 필사본의 내용 중 계명의 책과 1835년판 교리와 성약 출판본 양쪽 어디에도 실리지 않은 것은 단 10개 항목뿐입니다.

조셉 스미스 시대에 진행된 계시의 책 필사본의



조셉 스미스는 계시를

받아 적은 원고에 대하여 주님의 음성을 최선을 다해 구현한 것으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출판 준비

조셉 스미스가 이 필사본들을 출판하기에 앞서 해야 했던 일 중의 하나는 “그가 성신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오류나 실수들을 바로 잡는” 것이었습니다.³ 조셉은 계시를 받아 적거나 이를 필사본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그리고 출판 준비를 위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뜻하지 않은 인간적인 실수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표현을 분명하게 다듬는 일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나중에 받은 계시가 그 이전에 주어진 계시를 대신하거나 갱신하기도 했으며, 이런 경우 그 이전 판본의 문서들을 수정하는 편집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밖에도 때에 따라 다양한 변경 사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계시 원문을 한 절로 분할하거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작업이었으며 내용이나 의미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계시를 받아 적은 원고에 대하여 그가 “왜곡되고 거칠고 산만하며 불완전한 언어”라고 칭한 인간의 언어로 교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최선을 다해 구현한 것으로 여기는 듯했습니다.⁴ 출판된 계시의 서문으로서 주어진 다음 계시에도 이 원리가 반영된 듯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며, 이를 말하였노라. 이들 계명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요, 연약함 가운데 있는 나의 종들에게 그들의 언어의 방식에 좇아 주어진 것이니”(교리와 성약 1:24).

교회 대회를 통한 결정에 따라 조셉과 그의 동료들은 필요에 따라 원문을 수정함으로써 계시의 출판을 준비하도록 지명 받았습니다. 두 권의 계시의 책 원고 필사본에 대한 최근의 분석 결과는 원문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은 선별된 계시들이 미주리 주에서 출판되기

전에 수정되었으며, 반면 또 어떤 것들은 1835년 교리와 성약의 출판에 앞서 오하이오 주에서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자주 관찰되는 사례는 시드니 리그돈이 수정했던 내용으로서, 그는 종종 계시에 나오는 언어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당신”이란 의미의 단어인 “thee”, “thy”, “thine”을 현대어에 맞게 “you”, “your”, “yours”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것들은 대부분 이후에 다시 원래대로 복구되었습니다. 시드니 리그돈은 또한 문법을 수정했으며 용어와 의미를 분명하게 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언어적인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조셉 스미스

출판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그의 동료들이 변경한 편집상의 수정 사항들을 상당수 검토했으며 1833년 계명의 책이 출판되기에 앞서 자신이 직접 수정을 가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835년 교리와 성약이 출판되기 직전에 조셉 스미스는 계시에 언급된 개인들의 성(姓)을 추가하는 등의 추가적인 수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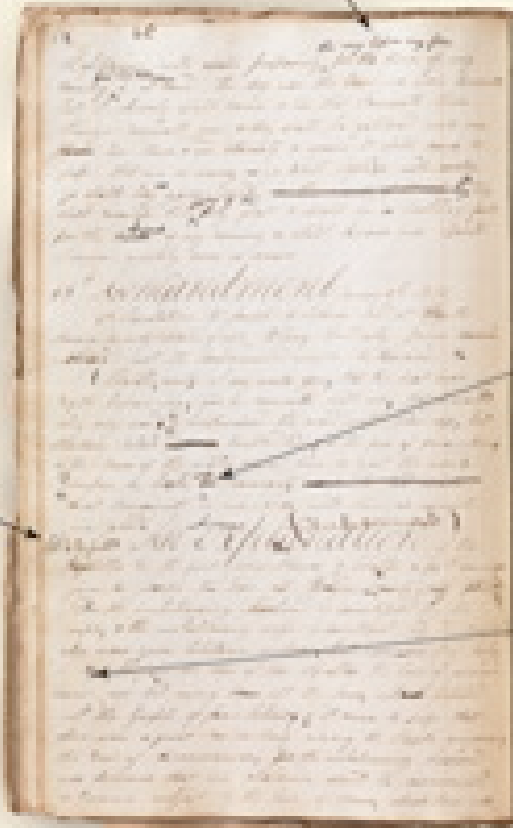
1834~1835년 사이에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는 1835년판 교리와 성약에 대한 준비로서 계시의 책 제 2권 필사본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 필사본의 내용 중



존 휘트머

1835년 교리와 성약을 위해 계시가 갱신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몇몇 경우에 의미나 내용적인 수정이 가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편에 나오는 계시들은 1830년에 주어졌는데 당시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 조직이 조셉에게 계시되기 전이었습니다. 1835년 당시에 조셉은 계시를 통해 이미 많은 직분과 정원회를 조직하였고, 새로 계시된 이 교회의 조직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원문에 대한 몇몇 수정 사항과 첨언이 20편에 반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65~66절에 있는 신권 직분의 성임에 관한 부분은 1833년 초판이 출판된 이후에 계시되었으며, 결과적으로 1835년에 추가되어



시드니 리그돈



윌리엄 더블류 웰프스

여덟 개의 계시만을 제외한 모든 항목들이 1835년판 교리와 성약에 실려 출판되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계시의 책 제 2권 필사본의 내용 중 1833년 계명의 책에 실려 출판된 것은 단 세 개의 계시밖에 없었습니다. 그 필사본의 내용 중 두 개의 계시는 1844년판 교리와 성약에 처음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981년판 교리와 성약에

이르기까지 때때로 단어 변경 등 편집상 수정된 사항들이 있었으나, 내용적인 변경 사항들은 1835년판 출판 작업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인도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정보

이들 계시 원고의 필사본들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조셉 스미스 기록 모음집 편집자들은 새로운 정보를 얻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조셉 스미스의 삶의 시대적 연대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학자들은 그 동안 여러 초기 계시에 월별로 표기되어 있던 일반적인 정보에만 의지해 왔으나, 계시의 책 제 1권에는 여러 계시들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들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계시들에 대해 존 휘트머가 기록한 간략한 역사적 소개 부분들도 학자들에게 역사적인 정황과 배경 지식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편집자들은 세심한 분석을 통해 필사본 원고에 수기로 기록된 대부분의 편집 기호들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계시와 번역 시리즈가 출판되면 한 쪽 면에 인쇄체로 된 원고 사본과 함께 맞은 편에는 해당 원본에 대한 사진 자료가 아울러 실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사진을 통해 수기로 기록된 원 서체, 편집 기호, 그리고 원고지의 질감까지 볼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필적을 쉽게 판독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원문에 가해진 변경 및 수정 사항은 누가 수정을 했느냐에 따라 사본에 다른 색으로 표시하여 독자들은 각 페이지에 기록을 남긴 개인들의 필적을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와 번역 시리즈의 작업을 통해 밝혀진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캐나다에서의 몰몬경 판권 취득에 관한 미출판된 계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데이비드 휘트머는 교회를 떠나 배도한 후에 한 가지 일화를 언급했습니다. 조셉이 받은 계시가 캐나다에서의 몰몬경 판권 매각에 관한 일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것임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일을 맡아 추진했던 사람들이 실패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조셉 스미스와 그 밖의 사람들은 매우 실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에 대해 지난 수십 년 간 데이비드 휘트머, 하이럼 페이지, 윌리엄 매클렐른의 진술에만 의존해 왔으며 그 계시의 실제 원문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계시의 책 제 1권은 바로 이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이야기의 완전한 전말을 알지는 못하며 특히 이 상황에 대한 조셉 스미스 자신의 입장과 관점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과과의 거룩한 교통을 통해

받은 계시를 함부로 “실패한 계시”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주님이 주신 지시에는 판권의 성공적인 매각을 위해서 그 일을 추진하는 자들의 합당성뿐만 아니라 판권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영적인 수용력과 이해력이 필요함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⁵

선지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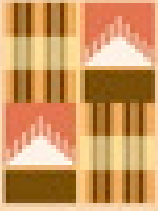
교회 초기의 계시 원문에 대한 수정 및 갱신 과정은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가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왔음을 엿볼 수 있게 해 줍니다. 계시의 원고들을 보면 조셉에게 주어진 지식과 교리가 정확하게 기록되고 인쇄되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실수나 잘못이 나올 수 있음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즉 새로운 계시 때문에 기존의 계시를 변경하거나 수정하게 되는 경우, 선지자는 그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 이해력을 반영하기 위해 이전에 기록된 계시를 수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조셉의 교리적 지식이 더 뚜렷해지고 확장됨에 따라, 기록된 계시도 그렇게 변모해 갔습니다. 신성한 주제와 문제에 대한 조셉의 이해력이 변화하는 특성에 따라 그 계시들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선지자는 한 번 기록된 계시라고 해서 그것이 그 이후에 주어지는 더 높은 계시들에 의해 변경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계시의 책 필사본들의 보존과 출판 덕분에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자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덕분에 학생들은 조셉 스미스가 가졌던 생각과 의도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쇄된 계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출판되었는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시의 책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지식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발전하는 교회의 변화하는 필요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시를 주시는 주님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간증도 커질 것입니다. ■

이 기사를 위해 도움을 주신 조셉 스미스 기록 모음집의 로빈 에스 젠슨과 교회 잡지의 조슈아 제이 퍼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주

1. Richard E. Turley Jr. 판, *Selected Collections from the Archive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자료 저장실 선별 자료 모음)(DVD, 2002년).
2. 계시의 책 제 1권(계명과 계시의 책)에 실린 계시 중에서 계명에 책에 포함되지 않은 유일한 계시는 A Book of Commandments 11의 1827년 5월-B 계시이다(교리와 성약 12편 참조).
3. Minute Book 2(또한 “Far West Record”라고도 불림), 1831년 11월 8일자.
4. 조셉 스미스가 윌리엄 펠프스에게, 1832년 11월 27일, 조셉 스미스의 개인적인 기록들, Dean C. Jessee, 개정판, (2008), 287쪽.
5. 계시의 책 제 1권, 30~31쪽 참조.



가나의 개척자들

브리검 영 대학교 미대에 재학 중인 게일린 리베이라는 가나의 개척자 성도들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미술 학사 학위 프로젝트로 그 개척자들의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2005년 가을부터 게일린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게일린은 다른 세 명의 학생-제스 부쉬넬, 에머리 글라우저 파웰, 안젤라 벨슨-과 함께 2006년 5월과 6월 동안 가나에서 지내도록 허가를 받았다. BYU 교수인 리처드 홀이 그 프로젝트를 감독했다. 이렇게 다섯 명은 개척자 성도들의 것들뿐만 아니라 신회원들의 일화와 사진들도 수집했고, 그렇게 수집된 풍부한 정보와 자료들은 여행을 마친 바로 다음달 캔버스에 옮겨지기 시작했다. 그 그림들은 2007년 10월에 브리검 영 대학교 B. F. Larsen 갤러리의 벽에 걸렸다. 다음은 그 작품들의 일부이다.

1. 아조아, 홀로 서다, 안젤라 벨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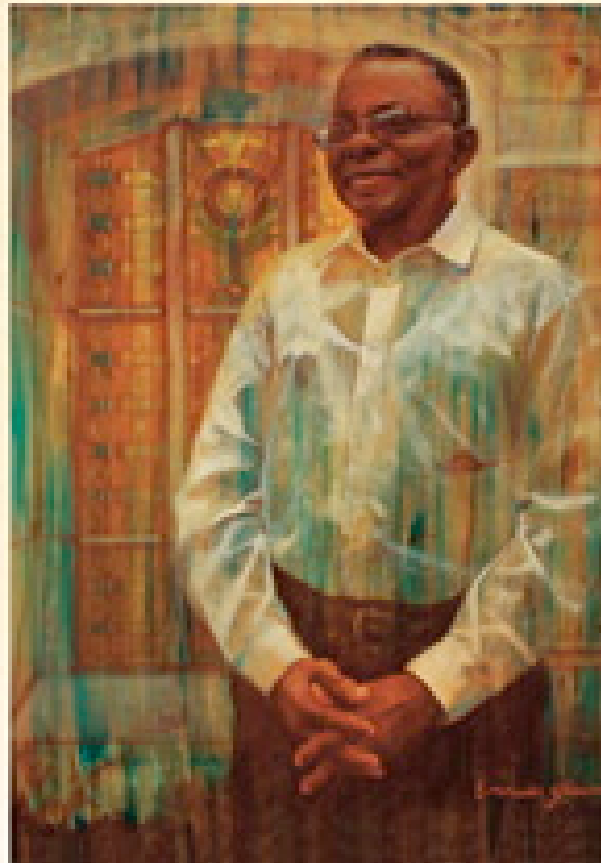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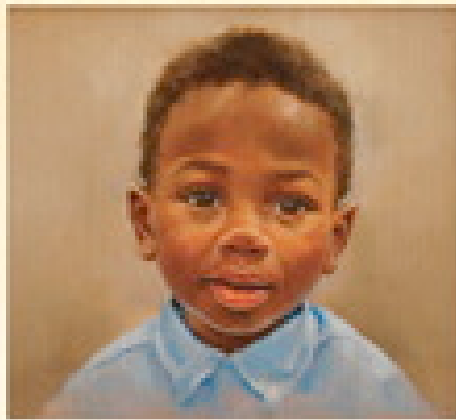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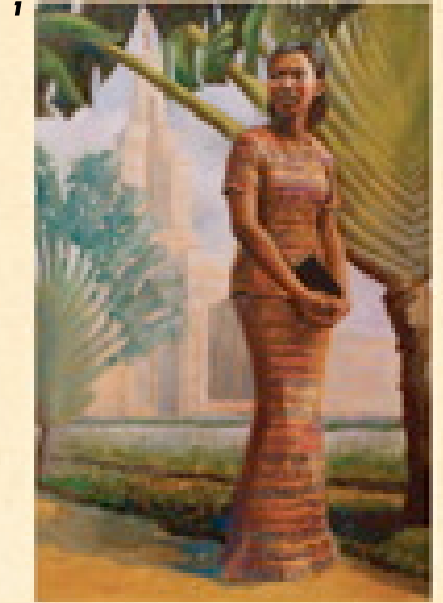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아조아 아모아-암파는 이렇게 말한다. “고향이나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회원으로 지내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후기 성도 여성은 홀로 있게 되는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회원으로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로 오해 받고 있으므로, 제가 진리의 모범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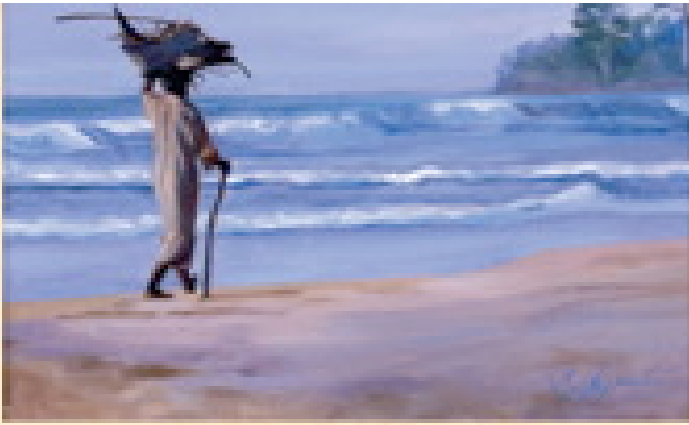
2. 조셉 윌리엄 빌리 존슨: 주님께 거룩함, 에머리 글라우저 파웰

미술가는 케이프 코스트의 존슨 형제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감사와 사랑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옵니다. 그는 14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고, 1978년 선교사들이 도착했을 때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침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삶과 혼을 하나님께 헌납한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사랑과 자애의 그리스도적인 성품이 내 존재의 일부가 되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는 영감을 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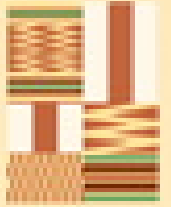
3. 비트너 존슨: 축복사의 손자, 제스 부쉬넬

고든 비트너 힝클리 회장의 이름을 딴 비트너 존슨 형제는 브리검 존슨의 아들이며 조셉 윌리엄 빌리 존슨의 손자이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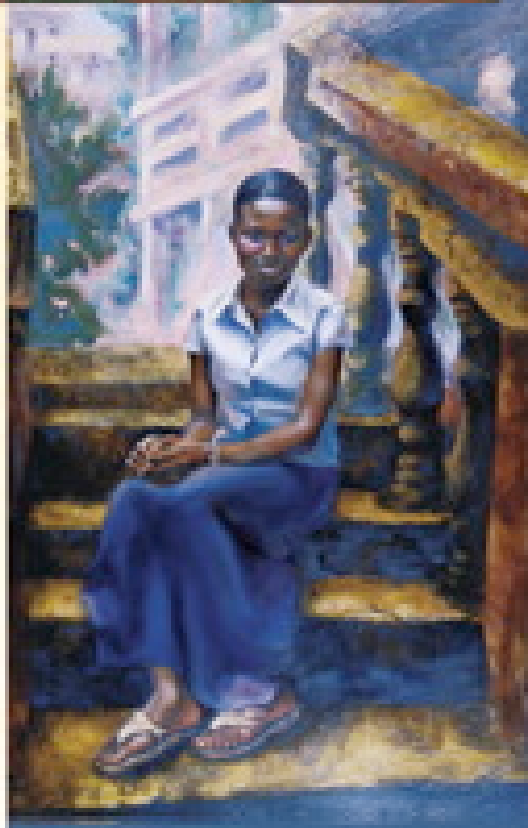


5



6

7



4. 부수아의 아침, 게일린 리베이라

5. 자녀들을 빛과 진리 안으로 이끄십시오, 게일린 리베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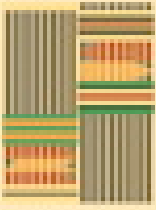
쿠마시의 코피 소수 감독과 아내 린다는 정기적인 가족 기도, 경전 공부, 그리고 가정의 밤을 통해 가정을 강화한다.

6. 임마누엘 키시 박사-“여인을 일컫게 세우며,” 제스 부쉬넬

1983년, 매우 가난해 보이는 한 여인이 영양 실조에 걸린 여러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후기 성도인 임마누엘 키시 박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키시 박사는 영양 실조에 걸린 아이들을 돕기 위해 교회로부터 식료품을 지원받아 아무런 비용 없이 쌀과 옥수수와 콩과 식용유를 주었다. 그 여인은 키시 박사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했다. 박사는 그 여인을 일컫게 세우며 말했다. “이 음식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모든 감사의 마음을 그분께로 돌려십시오.”

7. 시온의 자매들, 에머 보아텡, 안젤라 벨슨

미술가인 안젤라 벨슨은 귀환 선교사인 에머 보아텡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마치 오래 전에 떨어진 친 자매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에머는 쿠마시 지역에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 주었는데, 선교사의 빛이 아직도 그녀에게서 비치고 있었습니다. 에머는 언론학을 공부하고, 종교 교육원에 다니며, 데이트 하는 것에 대해 약간의 근심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복음이 계속 삶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독신 성인으로서 우리가 겪는 것들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8. 코피 소수 감독과 부친: 아버지와 아들의 용서, 임마누엘 글라우저

코피 형제는 선교 사업을 마쳤으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아버지께서 아들인 자신과 의절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결국 집에 들어섰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를 보고 "멈춰라"라고 말했다. 그래서 코피 형제는 멈춰 섰다.

"누구나?" 아버지가 물었다.

"아들입니다."

"내 아들?"

"네, 아버지의 아들 코피요." 이 말을 듣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일어서서 아들을 껴안았다.

"아들아, 아들아, 미안하구나.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를 다시 내 아들로 받아들였단다."

9. 윌리엄과 살렐 아쿠아: 한 마음 한 뜻, 임마누엘 글라우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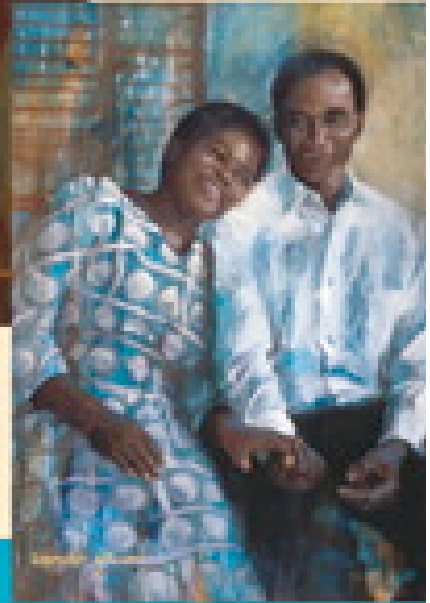
30년간 교회 회원으로 지냈던 윌리엄과 살렐은 복음 안에서 자라면서 많은 기쁨과 슬픔의 날들을 함께 겪어 왔다. 그 모든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있는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며 함께 손을 맞잡는다. 이러한 서로에 대한 사랑은 윌리엄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 준 부부 선교사들로부터 배운 것이다.

10. 침례의 물가, 제스 부쉬넬

평화로워 보이는 이 해변에서 수백 명의 가나 회원들이 침례를 받았다.

11. 테오도라 아쿠아: 3세대 딸, 제스 부쉬넬

테오도라는 케이프 코스트의 후기 성도 제3세대이다. 이는 젊은 시절 교회에 가입한 후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친 테오도라의 할머니의 신앙 덕분이다. 테오도라의 할머니는 새로운 회원이었을 때 집회소를 쓰고, 바닥을 닦을 물 양동이를 나르며, 모임 전에 교회가 깨끗하게 되도록 확인하는 일을 자기 일처럼 도맡아서 했다.



9

10





11



12. 군도도 그 기초, 카쿠 가족, 안젤라 벨슨

미술가 안젤라 벨슨은 이렇게 기록했다. “카쿠 형제와 자매가 케이프 코스트에 있는 자신들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했을 때, 저는 마치 유타 주의 제 집 안에서 거닐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요란한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고 나서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 곁에 모여 앉아 경전을 펴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이 인도를 위해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고 부모들은 답을 찾기 위해 경전을 살펴하던 모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12

13. 한나, 리처드 홀

이 그림의 모델인, 쿠마시에 사는 후기 성도 한나 바푸에 대해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한나의 눈부시고 열정적인 성격을 그림에 담고 싶었습니다.”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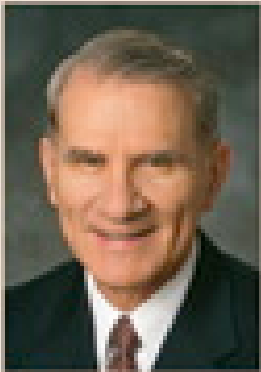
14.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에머 보야텡, 안젤라 벨슨

“꼭 춤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가 완벽한 조화와 장단 속에 어우러져 있었죠.” 안젤라 벨슨은 보야텡 가족이 열대 카사바 뿌리로 지역 특산 음식인 푸푸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 “한 명은 막대를 들어 올렸다가 쿵 소리가 나게 짚고 다른 한 명은 그 사이 사이에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 카사바를 사발 가운데로 모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리듬은 부지런히 계명을 지키려 하는 그들의 매일 매일의 삶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간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을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 가족을 얼마나 돕느냐로 측정됩니다. 그들에게서는 늘 변함없는—특히 한결같은 간증을 유지하려는 굳은 결심이 보입니다.”



14

삶의 본보기가 되는 경전의 일화들



제이 이 젠슨 장로
칠십인 회장단

저는 경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전 공부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은 부모 시절에 저와 아내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경전을 읽으면서 이 거룩한 말씀이 아이들에게 생생한 의미를 전달하도록 무척 애를 썼습니다. 때때로 훌륭한 경험들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제 자녀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지루해요. 제가 무슨 내용을 읽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자녀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이후로 저는 개인으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경전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전 공부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의 연결

교회 세미나리 프로그램에서 이 년째 가르치던 해에 이런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날 훌륭한 교사이자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프로그램의 현임 훈련자인 릴랜드 앤더슨 형제님이 수업을 참관하신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보통 그분이 참관하시면 학생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해 달라고

청하는데, 그러면 그분은 상당한 시간 동안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가르치는 구약 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분필 하나를 집어들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시작하셨고, 학생들은 곧바로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훌륭한 교사이신 그분이 제가 “서로 다른 시대의 연결”이라고 부르는 개념을 사용하여 학생들과 저에게 경전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의 한 쪽 끝은 과거에 고정되어 있고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옛날-그들이 살았던 시대, (2) 거기-그 백성들이 살았던 장소, (3) 그들-과거의 선지자들과 백성들.

그 다리의 반대편 끝은 현재에 고정되어 있으며 과거와 평행을 이루는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지금-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 여기-내가 살고 있는 장소, (3) 나-현재를 살고 있는 나



우리는 경전의
일화들과 우리 시대
사이의 공통점을
인식함으로써 두
시대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그들의 시대와 우리 시대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된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옛날 거기서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지금 여기 나에게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앤더슨 형제님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용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분은 먼저 사무엘상 17장을 펴게 하시고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 간에 있었던 대립과 다듬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골리앗과 맞서 싸울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신앙으로 가득 찬 어린 다윗이 자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앤더슨 형제님은 한 가지 패턴을 확립하셨는데, 그 패턴은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 시대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성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구들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표 1 참조)

경전 일화에서 공통점을 찾음

우리는 이와 같은 패턴을 따라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경전



표 1. 하나님의 대업을 위해 그분의 갑옷을 시험함(사무엘상 17장 참조)

구절	경전에 나온 표현	우리 시대와의 공통점
37	“[주님께서] 나를 ... 건져내시리이다”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39	“[이 갑옷이 내게] 익숙하지 못하니”	내게 익숙하고 검증된 갑옷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45	“나는 ...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성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46	“은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우리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도록 돕는 것이다.



구주께서 그분의 성역 초기에 하신 경험은 제가 영적인 성장을 하는 데 참된 본이 되었습니다.
 이 패턴은 리하이와 조셉 스미스의 일화를 포함하여
 다른 여러 경전 일화에서도 나타납니다.

일화에서 공통점들을 찾아보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경전을 읽고 연구할 때 자주 기도하십시오. 경전을 연구하기 전에 기도하고, 물론 연구한 다음에도 기도하십시오. 경전을 연구하다가도 이따금씩 멈춰서 여러분이 배우는 것들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더 많은 빛과 진리를 구하십시오. 경전의 일화들을 읽을 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줄 공통점들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제가 발견한 대부분의 공통점들은 기도와 연구, 탐구, 상고, 영의 속삭임 등을 통해 왔습니다.

앤더슨 형제님은 핵심 성구들을 강조함으로써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네 개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공통점들을 오늘날의 예시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이 네 가지 요지를 전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전 일화에서 공통점의 패턴들을 찾아보는 나름의 경전 연구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경전 일화들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으며, 우리 시대와 관련이 있는 대상으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1. 줄거리가 있다.
2. 줄거리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3. 일화에 나오는 어구나 문장에는 어떤 원리들이 담겨 있으며, 이 원리들은 영원한 진리를 설명한다.
4. 이런 어구나 문장들에는 과거와 우리 시대 모두에 적용되는 진리들이 나타나 있다.

신약전서에 나오는 일화의 공통점

세미나리 교사용 신약전서 교재의 저술을 돕는 과정에서 저는 가장 유용한 줄거리의 한 예를 알게 되었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분의 성역을 시작하셨을 때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광야로 가셨습니다.(Joseph Smith Translation of Joseph Smith's 역 성경), 마태복음 4:1~11, 경전

안내서 참조) 구주께서 하신 경험은 제가 영적인 성장을 하는 데 참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 그분은 자신의 신성한 책임을 자각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셨다.
- 계시와 깨달음이 그분께 임하였다.
- 그분은 혹독하게 시험 받으셨다.
- 시험이 끝난 후, 더 큰 빛과 진리로 나아가셨다.¹

이 패턴은 다른 여러 경전 일화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리하이는 도움을 구했고(니파이전서 1:5 참조), 도움이 임했으며(니파이전서 1:6 참조), 혹독하게 시험 받았고(니파이전서 1:19~20 참조), 더 큰 빛과 진리를 얻었습니다.(니파이전서 2:1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이와 비슷한 패턴을 경험했습니다.

- 그는 어느 교파에 속해야 할지 알기 원했다.(어느 교회가 참된가?)
-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고 기도한 후에 응답이 왔다.
- 그는 혹독하게 시험 받았다.
- 시험을 통과한 후 더 큰 빛과 진리를 얻었다.

저도 제 삶에서 이와 같은 패턴을 따르는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 받았을 때의 경험은 그 좋은 예가 됩니다. 1992년 6월 첫째 주에 그 부름이 왔고, 저의 첫 임무는 8월 1일부로 중앙 아메리카에서 지역 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휴가를 보내던 7월 한 달 동안, 저는 경전, 특히 몰몬경에 흠뻑 빠져 연구와 기도와 명상을 하며 여러 시간을 보냈고 그러면서 제 자신을 준비시키고 부족하다는 느낌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4장 1~11 절과 Joseph Smith Translation of Joseph Smith's 역 성경) 마태복음 4장 1~11 절에 기초하여 표 2에 나온 공통점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과 Joseph Smith Translation(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태복음 4장 11절의 내용은 상당히 다르지만, 뒷부분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 즉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라는 원리는 참된 원리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와 같은 영적인 성장의 패턴을 경험해 보았던 때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물문경에 나오는 일화의 공통점

제가 감독으로 봉사하던 당시, 심각한 범법을 저지른 회원이 저를 찾아와 권고와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는 회원 자격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판사인 저에게 범법을 고백한 것은 회개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엘마서 36장에 나오는 일화의 공통점은 이 회원이 회개를 시작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표 3 참조)

주목할 점은 엘마가 용서를 받은 후로는 자신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 죄로 인해 괴로워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마가 죄에 대한 기억 자체를 잊은 것은 아니었으나(16절 참조) 그 죄로 괴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죄를 다시 범하는 일을 막기 위해 죄의 기억은 허가하시지만 그 고통과 상처는 가져가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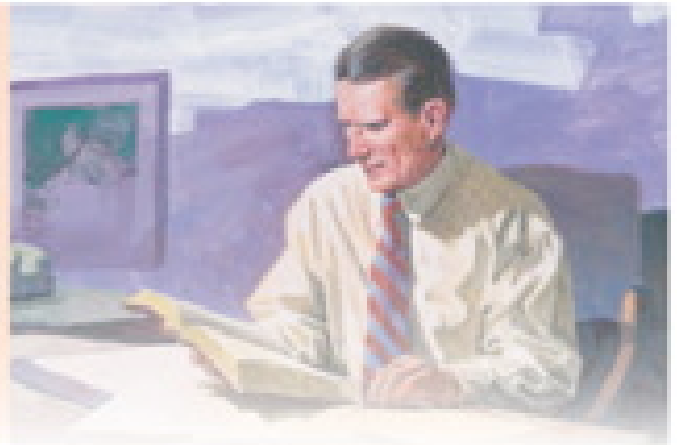


표 2. 영적인 성장의 패턴(마태복음 4장 참조)

구절	경전에 나온 표현	우리 시대와의 공통점
1	구주께서는 그분의 신성한 책임을 자각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자 하셨다.	나는 내게 주어진 신성한 책임을 자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였다.
1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셨다.	연구와 금식과 명상과 기도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3~10	그분께서는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다.	부족하고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시험 받았다.
11	천사들이 나와서 그분께 수종 들었다.	성신을 통해 위안과 가르침을 받고 교화되고 강화되었으며 신성한 도움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표 3. 회개와 용서(앨마서 36장 참조)

구절	경전에 나온 표현	우리 시대와의 공통점
6	앨마는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피하였다.	이 회원은 죄를 짓고자 했다.
6~11	하나님께서서는 천사를 보내시어 앨마를 멈추게 하셨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에 사로잡혔다.
11~16	앨마는 공포에 떨며 극심한 고통을 당하였다.	그는 두려움과 죄책감과 후회로 고통을 겪었다.
17	앨마는 자신의 아버지가 속죄에 대해 예언하셨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의 밤에서 속죄에 대해 가르치셨던 것을 기억했다.
18	앨마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다.	그는 용서받으려 기도했다.
19	앨마는 더 이상 자신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죄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21~23	앨마는 기쁨과 빛과 힘을 받았다.	그는 기쁨과 빛과 힘을 받았다.
24	앨마는 쉬지 않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고자 노력했다.	그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고자 노력했다.
27	앨마는 시험 중에 받들어 주심을 입었다.	그는 시험 중에 받들어 주심을 입었다.

우리의 유익과 배움을 위해

일화의 공통점들은 경전에 나오는 일화들에서 시작되거나 또는 그 일화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건들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화들을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단어나 어구 또는 원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연구하다 보면 다른 원리들도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그 원리들을 하나로 모으게 되면, 과거에 살았던 선지자들과 백성의 이야기, 즉 옛날에-거기서-그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여기-내가 사는 오늘날에 적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시대를 연결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니파이가 “모든 경전을 우리에게 비유하여 그것이 우리의 유익과 배움이 되게 하고자 하였음이니라”(니파이전서 19:23)라고 말한 의미일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됩니다. (조셉 스미스-마태 1:37 참조) ■

주

1. *Life and Teachings of Jesus*(Church Educational System manual, 1974년), 41쪽 참조.



최 하 단 에 서 최 정 상 까 지

우루과이의 이 청년은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돈 엘 설 교회 잡지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보통 그 재능이 여러분을 그 분야의 정상에 등극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셀린 카브레라의 경우, 그녀의 재능은 오히려 그녀를 지구의 최하단인 남극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셀린은 훌륭한 꿈이라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배웠고, 세상에는 그 꿈을 통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셀린은 열네 살 때 자신의 모국인 우루과이의 Asociacion Civil Antarkos가 주관하는 미술 경시대회에서 입상했습니다. 부상으로 조셀린은 학교 선생님과 다른 입상자들 및 그들의 선생님들과 함께 남극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조셀린의 아버지와 미술 지도 교사는 조셀린이 구상해 왔던 그림을 완성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여행은 흥미로운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선, 군용 수송기를 타고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칠레 폰타 아레나스로 갑니다. 그런 다음 수면 상공을 비행하여 남극 칠레 기지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몬테비데오에서 3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우루과이 남극 아르티가스 탐사 기지까지 육로 여행을 합니다. 남극 해안에서 떨어져 있는 킹조지섬에는 몇몇 나라의 과학기지들이 모여있습니다.

조셀린의 그림과 여행 기록은 *Uruguay Natural*이라는 국립 잡지에 특집 기사로 다루어졌습니다.

조셀린은 빙그레 웃으며 남극이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그림에서는 펭귄들과 얼음을 볼 수 있었지만, 실제 남극을 방문한 시기는 여름이어서 메마른 땅에 군데군데 눈이 남아있을 뿐 펭귄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오히려 다른 광경들에 눈을 돌리게 해 주었습니다. 조셀린은 해안가를 따라 산책을 즐기다가 콜린스 빙하를 보게 되었고, 최초의 세계 일주 항해자인 드레이크 제독의 수로도 찾았으며, 기지에 담수를 제공해 주는 우루과이 호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기지들도 가 보았습니다.



조셀린의 남극 방문 사진들



우루과이 콜로니아 지방부, 콜로니아 수이자 지부의 회원인 19세의 조셀린에게 그 여행은 꿈의 실현이었습니다. 그 여행 이후로 다른 꿈들도 실현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개인 발전 경험을 완수하고 청년 표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조셀린은 그 성취를 기억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딸로서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기억하기 위해 메달을 목에 걸고 다닙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조셀린은 대학교에서 건축학을 공부할 계획입니다.

이제까지는 학교에서 간증을 전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조셀린의 믿음을 존중하지만, 종교에 관해 자주 토론하지는 않습니다. 조셀린은 나서지는 않지만 옳은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한번은 수업 중에 급우 한 명이 후기 성도들은 십일조를 내도록 강요받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조셀린은 그 말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아, 우리는 자발적으로 내는 거야.” 그리고는 십일조는 하나님께 자진해서 드리는 헌물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셀린은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12살이 되어서야 간증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언제까지나 부모님의 지식에 의지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조셀린은 깜짝 놀랄 만한 한번의 경험으로 간증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여름 방학 동안에는 종종 자매 선교사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하루는 선교사 토론에 나가 보니 가장 친한 학교 친구가 와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저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말해 주었어요.”라고 말하는 조셀린은 친구에게 간증을 전할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좋아해요. 조셉 스미스는 성스러운 숲에서 어려운 순간에 직면했지만 기도로 나아갔죠. (조셉 스미스-역사 1:15~17 참조) 저는 그 용기에 감동받았어요.” 조셀린은 그 옛된 선지자가 다른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바에 충실하였다는 사실에 경탄합니다.

니파이 역시 조셀린에게는 영웅입니다. “저는 니파이가 형들에게 담대히 맞서서 물려서려 하지 않았던 그 용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니파이전서 3:14~21; 4:1~4 참조)

조셀린이 이루려고 노력하는 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취미로 즐기는 음악입니다. 조셀린과 여동생 일레나는 최근 오르간 교사 자격증을 땀습니다. 조셀린은 초등학교 노래에서부터 영화 음악에 이르기까지 음악 연주를 매우 좋아합니다. 음악 감상도 아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물론 태버내클 합창단의 음악을 좋아합니다.

조셀린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찬송가를 마음속에 떠올려요. 찬송가는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죠.”라고 말합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지부 집회소의 세미나리에 매일 참석하는 조셀린은 “가끔 좀 더 일찍 가서 피아노 앞에 앉아 찬송가를 연주하기도 해요.”라고 말합니다.

연차 대회 방송이 있을 때면,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앉아 태버내클 합창단의 전주곡을 듣습니다.

이제 조셀린은 사람들이 평생 가볼까 말까 한 남극을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가보고 싶은 데가 또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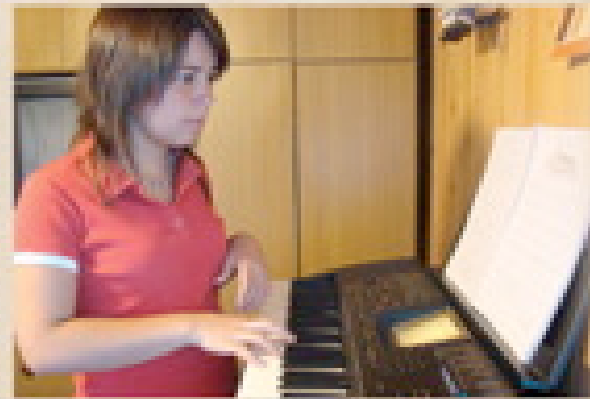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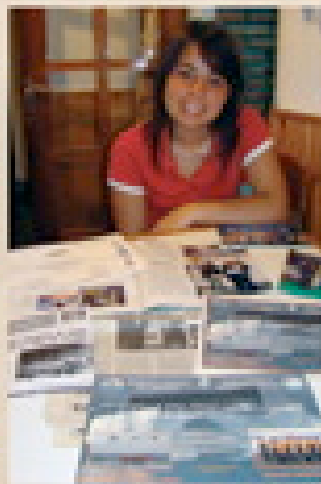
“저는 연차 대회에 참석하여 합창단의 노래를 들어보고 싶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조셀린이 지구의 최하단으로 갈 수 있었다면, 무엇을 원한들 최정상으로 오르지 못하리란 법은 없겠죠. ■

아래: 조셀린(붉은색 상의), 어머니 라쿠엘, 아버지 루벤, 동생 일레나.

가운데: 조셀린, 여행의 추억들이 담긴 사진들과 함께.

오른쪽: 건반 연습을 하고 있는 조셀린.



이제 조셀린은 사람들이 평생 가볼까 말까 한 남극을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가보고 싶은 데가 또 있을까요?

“저는 연차 대회에 참석하여 합창단의 노래를 들어보고 싶어요.”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의식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성구와 인용문,
또는 다른 원리를
가르친다. 교리에 대한

간증을 전한다.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에게 그들이 느끼고 배운 것을 함께
나누도록 권유한다.

성전 의식을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성전은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은 사용될 조건과 집행되어야 할 의식,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 표준을 지시하십니다. 개인적인 합당성은 성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우리는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노력함으로써 준비합니다.”(“거룩한 성전, 신성한 성약”,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113쪽)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1906~2004),

십이사도 정원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기에 합당해야 하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합당성은 신권 지도자들과의 접견을 통해 확인됩니다. 성전 추천서에 기록되는 우리의 서명과 지도자들의 서명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합당성을 증거합니다.”(“Come to the House of the

Lord”, *Ensign* 1992년 5월호, 15쪽)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성전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교리와 성약 110:7: “내가 이 집에서 자비 가운데 나의 백성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임이니라.”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1907~1995):

“시간과 여건과 개인적 상황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자주 성전에 갑시다. 돌아가신 우리의 친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전 예배를 통해 오는 개인적인 축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신성하게 헌납된 장소에서 오는 성스러움과 안전을 느끼기 위해 갑시다. 성전은 아름다움의 장소요, 계시의 장소이며, 평화의 장소입니다.”(“The Great Symbol of Our Membership”, *Tambuli* 1994년 11월호, 6쪽).

교리와 성약 38:32: “내가 너희에게 ... 명령을 주었나니 ... 그곳에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게 되리라.”(또한 교리와 성약 95:8 참조)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화:

“성전 엔다우먼트의 축복은 침례와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깨끗이 준비해야 합니다. 성전 사업은 우리가 개인적인 엔다우먼트 의식을 행하고 산 자를 위한 성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이와 똑같은 의식을 돌아가신 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도 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전에서는 성전을 짓고 성스러운 성전 의식과 성약에 참여하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해의 왕국에서의 승영에 이르는 데 필요한 의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전 의식들은 우리를 구주께로 인도해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임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Temple Blessings”, *Brigham Young University* 2005~2006 *Speeches* 2006년, 1, 4쪽).

고든 비 힐클리 회장(1910~2008):

“진실한 영과 신앙을 지니고 성전에 가는 모든 남자와 여자는 주님의 집을 나설 때 조금 더 나은 남자와 여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때때로 세상의 시끄러운 잡음과 어수선했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그분의 영을 느낄 수 있도록 성스러운 주님의 집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Of Missions, Temples, and Stewardship” *Ensign* 1995년 11월호, 53쪽). ■

정직에 대한 시험

패트리샤 에이 제이콥스 및 프란시니 프레센차

패트리샤 저와 저의 가장 친한 친구 프란시니는 브라질의 우리 학교에서 몇 안 되는 교회 회원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는 사소한 일들이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런 작은 일들 중 하나가 어느 토요일에 프란시니와 제가 함께 참석하는 수학 수업에서 일어났습니다. 토요일 수업 시간에 우리가 며칠 전 치렀던 수학 시험지를 다시 받게 되었는데, 프란시니는 이날 결석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프란시니의 시험지를 제 책상 위에 올려 놓으시면서 그것을 프란시니에게 전해 주라고 하셨을 때, 저는 거기에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프란시니와 저는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이미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터라, 프란시니의 점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을 보고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그 시험지를 들여다보다가 저는 선생님이 오답 하나를 실수로 맞게 처리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저는 선생님께 프란시니의 성적이 너무 높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수학 실력에 대한 시험도, 우정에 대한 시험도 아닌, 바로 우리의 정직에 대한 시험이었다.

저는 반 전체가 저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학생들은 수군거리며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에게 못할 것을 하면서까지 제 성적이 높아지게 하려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런 반응에 얼떨떨했고 속상했습니다. 프란시니가 여기 있었다면 분명히 그녀는 자신의 성적이 잘못되었다고 말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수군거리며 누가 자신의 성적이

깨이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직하려 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저를 친구를 배신한 사람으로 보듯 했습니다. 저는 프란시니도 자기 성적이 잘못되었음을 정직하게 말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에는 아직도 진정 정직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창 열띤 토론 후, 선생님과 반

학생들은 한번 시험을 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생님은 프란시니의 오답을 그대로 놓아 두고 월요일까지 기다렸다가 프란시니가 그 성적을 받아보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결정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프란시니를 시험해 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결정을 내리셨고, 그 결정을 제가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프란시니가 옳은 선택을 하고 정직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 주말 내내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프란시니가 그 시험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 있기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월요일 수학 시간에 프란시니는 시험지를 받았고, 반 전체가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프란시니: 월요일 수학 수업이 시작되자 곧 선생님은 제 수학 시험지를 건네주셨습니다. 시험지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집어 넣으려는 순간, 제 점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가 선생님께 채점이 제대로 됐는지 여쭙었고, 선생님은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험지를 가리키며 “그렇지만 여기 이 문제는 틀렸는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패트리샤가 앞으로 나오더니 자기 시험지에도 오답이 맞게 처리되어 있다고 말했고 지난 토요일에는 정신이

없어서 미처 몰랐다고 했습니다.

반 전체가 갑자기 술렁거렸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패트리샤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또 다른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 시험 성적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인데 갑자기 이런 여러 반응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패트리샤가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일을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수학 시간에 수학과는 전혀 상관 없는 시험을 제 자신도 모르게 치렀다는 것과, 급우들이 제 친구를 그런 식으로 매도했다는 것을 알고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정직할 수 있었고 특히 패트리샤의 기도가 응답되어 제가 제 시험지의 잘못된 점을 알아챌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저를 믿어 주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패트리샤와 프란시니: 우리 둘은 이 경험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어느덧 자라서 우리가 후기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원리들에 대해 모범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복음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해 줍니다. ■

정숙함: 우리 모두를 위한 시대를 초월한 원리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우리가 옷을 입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를
나타냅니다.

오 늘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이 겪는 어려움들 중 하나는 점점 더 천박한 방향으로 흐르는 세상 속에서 정숙함의 원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정숙에 관한 교회의 표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숙함에는 옷차림과 언어, 생각, 행동이 모두 포함되지만, 여기서 저는 특별히 옷차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래 옷을 입는 주된 목적은 우리의 몸을 가려서 여러 자연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본래의 목적과 함께, 이제 의복은 좀 더 복합적인 목적들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의복은 부, 사회적 지위, 개성, 또는 소속감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옷차림은 또한 우리의 태도와 가치관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후기 성도인 우리가 옷을 입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헌신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관념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약화시키는 이 세상에서, 정숙함의 원리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감을 더 높여 줍니다. 이 원리대로 생활하고 그것을 가르침으로써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와 같은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정숙함이란 무엇인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에는 정숙함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단정치 못한 옷차림으로는 짧은 반바지와 치마, 몸에 꼭 끼는 옷, 배를 노출시키는 윗옷, 기타 노출이 심한 복장 등이 있습니다. [여성인] 어깨를 가리는 옷을 입어야 하며 가슴이나 등이 깊이 파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심히 노출된 옷을 피해야 합니다. [남성] 또한 단정한 외모를 유지해야 합니다. 의복이나 몸차림, 또는 몸가짐에서 언제나 깔끔하고 청결해야 하며, 또한 단정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게 예의 없는 모습을 갖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신에게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주님의 면전에 선다면 내 모습에 스스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¹

정숙한 의복을 선택할 때 영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또한, 정숙함과 관계된 원리들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앞거나, 구부리거나, 몸을 쪽 펴거나, 계단을 오를 때 노출이 심하지는 않는가?
- 노출이 심하거나 자극적인 옷을 입음으로써 주목을 받으려 하는가?
- 특정한 옷을 입기 위해 성전 가먼트를 줄이거나, 걷어 올리거나, 또는 변형시키고 있는가?

꼭두각시가 되지 마십시오



마네킹은 세상에서 유행하는 옷이면 무엇이든 입습니다.
여러분의 표준은 그보다 높습니다.

여러분의 표준이 높고 있습니까?



너무 달라붙거나, 너무 짧거나, 너무 노출이 심하다면 교회의 표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표준에 맞추기 위해 여러분의 표준을 끌어 내리지 마십시오. (정소년의 힘을 위하여, 14~16쪽 참조)

왜 정숙해야 하는가?

정숙함의 원리 이면에 있는 교리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정숙함이 절제된 행동으로 이끌어주는 덕목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정숙함의 이면에 있는 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지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모세서 2:27 참조)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성스러운 선물이며, 거기에는 그분이 계획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선물을 감사하게 받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소중히 대하고 다룸으로써 이 은사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명합니다. (교리와 성약 88:33 참조) 우리의 몸과 육적인 행위를 조절하고, 통제하며, 억제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몸을 가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열매를 취한 이후로 그들의 눈은 열렸고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간단한 앞치마로 몸을 가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앞치마로는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서는 더 정숙한 가죽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7, 21 참조)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표준을 가지고 계셨으며,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그분의 표준은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9절에 나와 있듯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나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원리

정숙함은 주님의 “더 높은 길” 가운데 하나이며 사회의 유행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여 가르쳐줍니다. 옷차림에 대한 다음의 성구들을 생각해 보고 그것들이 정숙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숙함은 겸손을 나타냅니다. 물몬경의 선지자 야곱은 교만과, 부에 대한 사랑을 크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파멸되지 않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당시에 백성들의 교만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는 바로 그들의 옷차림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 몇몇이 너희 형제들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얻었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의 교만 중에 자고하여지며, 너희 의복의 값짐으로 인하여 목을 뻗뻗하게 하고 고개를 높이 쳐들며, 너희가 너희 형제들보다 낫다 생각하여 그들을 핍박 하는도다.”(야곱서 2:13)

우리의 옷차림과 겸손에 관한 내용은 교리와 성약 42편 4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네 마음에 교만하지 말지니, 네 모든 옷은 겸소하게 하며” 이 구절이 우리가 옷을 멋지게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옷의 브랜드나 늘 최신 유행을 따르는 데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자원을 좀 더 오래 지속되고 더 의미 있는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입는 옷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을 나타냅니다. 주님께서서는 모세에게 그분의 성스러운 집에서 입기에 합당한 성스러운 옷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출애굽기 28:2 참조) 이러한 명령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이와 같은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 우리가 매일 입는 평상복은 주님께서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예배할 때 적절한 복장을 착용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러한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언제나 그분의 자녀들에게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고 권고해 왔습니다.”² 우리는 각자 다음의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옷 입는 방식은 여러분이 진정 어떠한 사람인가를 그대로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복장과 몸차림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에 관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며,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몸차림을 깨끗이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을 때, 성신이 함께 동반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³



표준

정숙함과 관련된 축복

정숙함과 관련된 가장 주된 축복들 중의 하나는 자신감의 고취입니다. 한 자매는 자신의 친구가 복음을 배우는 과정에서 정숙함의 원리를 배워 축복을 받게 된 다음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몇 해 전 여름, 저는 직장 동료 한 명을 교회에 데려왔습니다. 그 친구가 먼저 저희 집으로 와서 같이 교회에 가기로 했었는데, 그녀는 더운 날씨에 보통 입게 되는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간다고 원피스를 차려입은 그녀의 감각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와드 회원들은 친구를 반겨주었고, 그녀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교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나중에는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고 자녀들을 초등학교와 청소년 활동에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 동안 평일에 활동 모임을 할 때면 보통 그 친구는 소매가 없는 블라우스와 허벅지 중간까지만 오는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그 옷차림이 천박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후기 성도의 표준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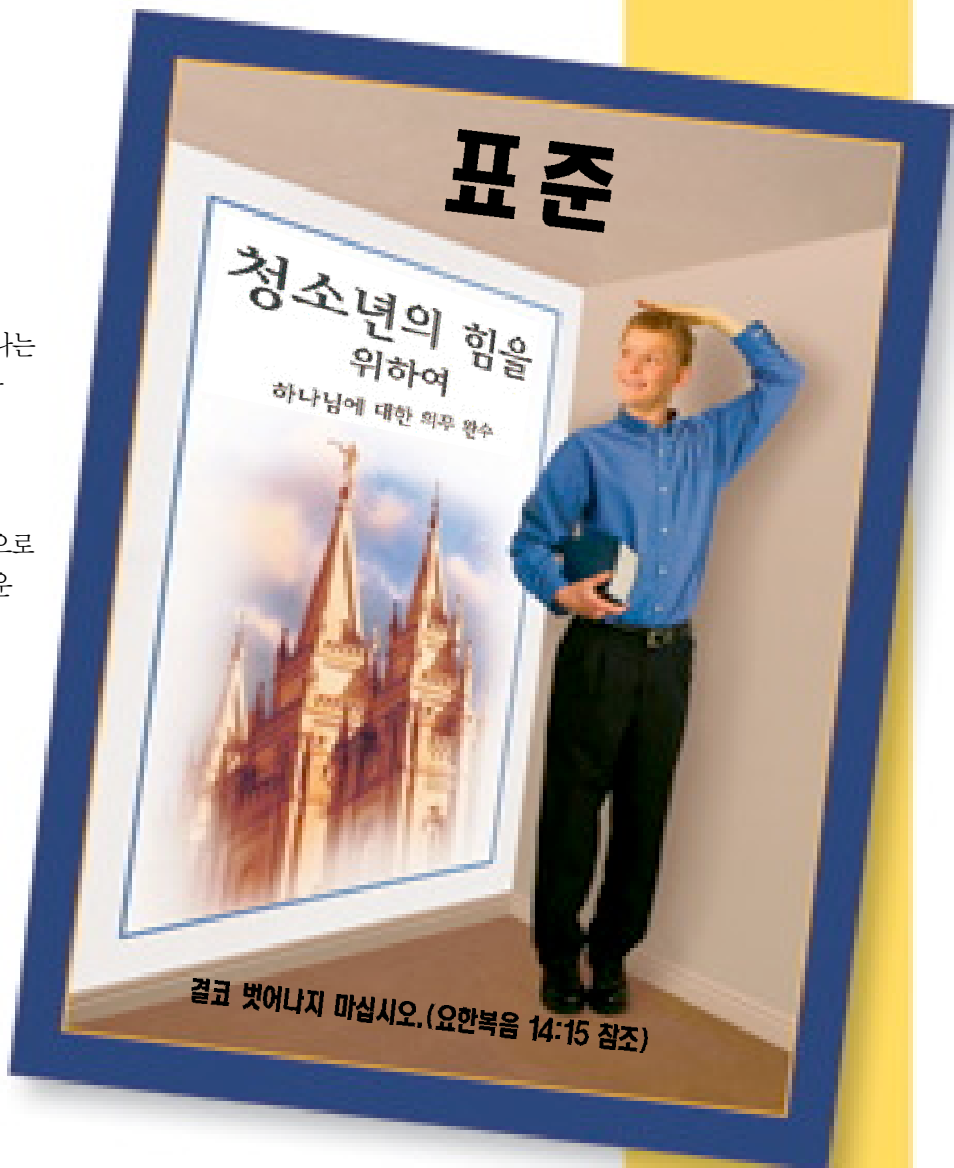
“몇 주가 지난 후, 그 친구에게 선교사들과 함께 교회에 대해 더 배워 보고 싶은지 물어보았습니다. 친구는 자신이 수줍음이 많아서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면 불편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는 단순히 와드의 예배 모임과 활동들에만 계속 참석하고 싶어 했고, 그렇게 지내다가 복음에 관해 궁금한 점이 생길 경우 그때쯤이면 친해져 있을 다른 회원들이나 저에게 물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에게 참 흥미로웠던 점은 그 친구가 계속해서 교회 모임과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점점 더 긴 치마와 긴 반바지, 그리고 소매가 있는 셔츠를 입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초가을의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친구는 단순히 주위에 있는 후기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옷을 입는지를 조금씩 보고 느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서 더 고취된 자신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변화된 옷차림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받은 신성한 유산과 같은 복음 원리들을 계속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제 친구는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들의 이면에 있는, 그 행위들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 친구의 자신감은 커져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커지면서, 이전에는 불편하게 느껴졌던 선교사와의 토론을 비롯하여 복음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복음 원리와 표준을 알고 이해하게 되면서 걸로 드러나는 한 가지 양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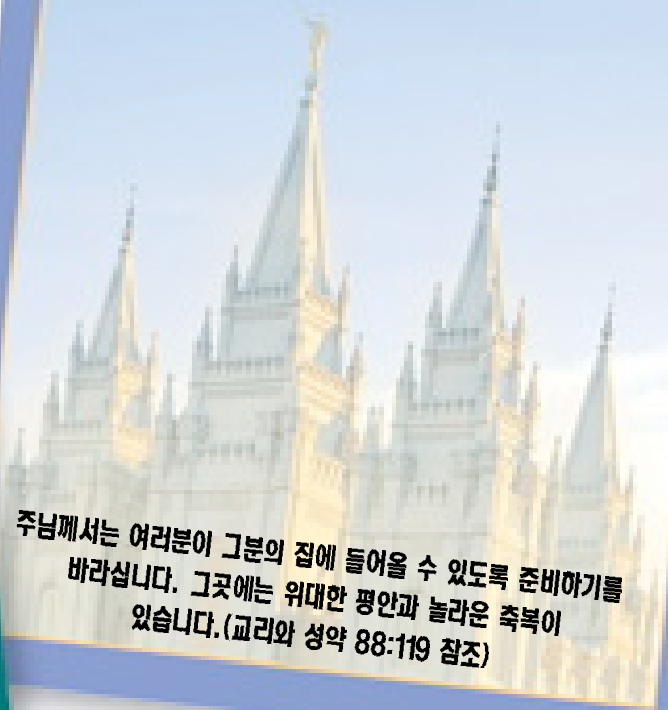


알맞은 복장을 착용하십시오



적절한 복장을 착용하십시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14~16쪽 참조)

더 높은 것을 소망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위대한 평안과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88:119 참조)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제 친구는 생활의 한 부분을 그와 같이 바꿀 수 있음을 깨닫고서 더욱 중요한 다른 부분들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변화들 때문에 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종하게 되었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후에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았는데, 엔다우먼트를 받은 후에도 옷장의 옷들을 정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정숙함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⁴

정숙함의 미덕이 우리의 삶에 조절과 절제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이 커짐을 느끼게 됩니다. 교리와 성약 121편 45~47절에 나오는 약속들을 기억하십시오.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네 영혼을 적시리라.

“성신은 변하지 않는 네 동반자가 될 것이요, 네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되며”

우리가 모두 이와 같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주

1.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 2001년) 15~16쪽.
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14쪽.
3.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14~15쪽.
4. 개인 서한.

표준: 하나의 사이즈,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

영국의 한 스테이크의 성인들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성인들에게도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데비 트위거

새라 에드워즈, 에밀리 보울스, 엘리너 맥키는 쇼핑을 좋아합니다. 이들 젊은 후기 성도 여성들이 영국 노샘프턴에 있는 옷 가게에 쇼핑하러 갈 때면 옷을 살 돈과 함께 가져가는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부모들도 옷을 사거나 볼 만한 영화를 고를 때 이 책자를 참고합니다.

영국 노샘프턴 스테이크에서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삶의 일부로 삼고 생활합니다. 그 책자는 부모들이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나 어떤 활동에 참여할 때 그것들이 괜찮은지 평가해 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책자는 또한 안식일을 더 온전히 지키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사실, 이 스테이크의 성인들은 그 책자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책자를 “여러분의 힘을 위하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스테이크 회장에서 해임된 클라이브 줄리프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고 자녀들이 선교 사업과 성전 결혼을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함께 토론하고 기도한 결과, 우리는 영감을 받아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책자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족이 각 가족 구성원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이 표준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새라 에드워즈, 엘러너 맥키, 그리고 에밀리 보올스는 옷을 살 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책자가 간편한 지침서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 책자를 가족들에게 강조하면서부터 스테이크의 청소년들도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고-깨닫게-되었습니다. 열아홉 살인 엘러너 맥키는 말합니다. “표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표준에 대해 어른들을 바라보죠.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는 우리가 모두 따라야 하는 표준을 어른들에게도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고, 또 어른들과 청소년들 사이에 이중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참 좋아요.”

헌팅턴 와드의 열일곱 살 청소년 대니얼 킷셀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좋아해요. 그 책자는 단지 청소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제 부모님도 그 책자를 살펴보고 거기에 나오는 표준을 지키려고 하시죠.”

밴버리 와드의 리차드 오거 감독과 아내 질의 가족 역시 이 권고를 따름으로써 오는 영향력을 느꼈습니다. 이 가족의 두 딸인 한나와 샬럿은 둘 다 최근에 영국 런던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템즈 밸리 경찰서의 경감으로 일하고 있는 오거 감독은 세상의 낮은 표준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런 세상의 표준이 청소년들과 그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질과 저는 자녀의 양육에 관해 배우려고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공부합니다. 자녀 교육에 일관성을 유지하며 경전의 가르침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말이죠.”

“딸들의 십대 시절 동안 이 책자를 여러 방면에서 지침으로 삼으며 생활했습니다. 딸들이 직접 자신들의 옷을 사려고 하면, 사실 좀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옷을 고를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책자를 가지고 가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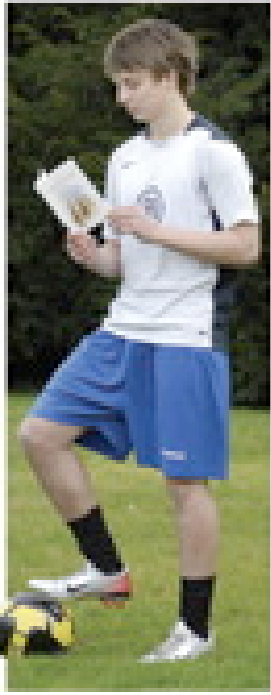
스물한 살의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방 속에 그 책자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 책자는 무엇이 적절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거든요.” 이 자매들은 어떤 옷의 경우 약간의 바느질을 하고 부속품들을 달면 좀 더 정숙한 옷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아홉 살의 샬럿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 언니와 저는 부모님이 우리 대신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선지자와 구주의 가르침을 따르고 계세요.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항상 구주의 가르침대로 생활하게 되는 셈이죠.”

많은 성인들은 그 책자가 정숙함의 표준과 대중 매체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표준 이외에도 안식일 준수에 관한 선지자의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도와준다고 말합니다. 케터링 와드의 상호부조회 회장인 수 프리스 자매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자는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열여덟 살이 되었다고 해서 그 지침들이 갑자기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지침과 표준들을 통해 제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평가해 봅니다. 사실 제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몇 가지 변화가 제 삶에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평소 안식일을 지내는 방법에 작은 변화를 주었는데, 그 이후로 안식일은 제게 진정한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거 가족-샬럿, 질, 리차드, 한나-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표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 전에 깨달았다.



조쉬 레이놀즈가 일요일에 열리는 스포츠 경기에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의 부모가 보여준 훌륭한 모범과 가르침은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같은 케터링 와드의 에이 제이 허프 자매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중점을 두고 생활하면서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십대 자녀를 셋이나 둔 엄마로서, 저 역시 아이들의 표준대로 온전히 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표준을 높이고’ 훌륭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절실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에 관해 개인적으로 더욱 훌륭한 모범을 보이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 가족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그 책자를 가정의 밤 시간에 함께 봅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족 활동을 구상하든, 아니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든, 거기에 나온 표준들은 우리를 인도하는 지침이 됩니다.”

그러한 모범들은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많은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케터링 와드의 열여섯 살 난 제사 조쉬 레이놀즈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 나이 또래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역 팀에서 친구 몇 명과 함께 일요일에 열리는 경기에 나가고자 하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 이후로는 부모님이 일요일에 경기를 못하게 해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제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도록 가르쳐 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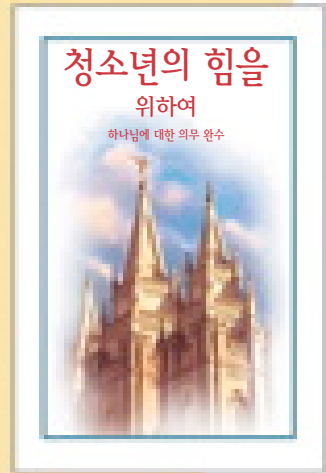
다섯 자녀를 둔 케터링 와드의 헤더 슬래터리 자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부모와 성인인 우리는 이런 표준들을 청소년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관으로 여기면서 정작 우리도 청소년들만큼이나 유혹에 영향받기 쉽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는 우리도 청소년들 옆에서 식탁대를 잡고 함께 노력해야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서로 강화시키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줍니다.”

노샘프턴 스테이크의 회원들이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지침들을 따름으로써 개인으로서, 또 가족으로서 더 강화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줄리프 회장은 자신의 느낌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 책자는 영감을 통해 왔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단순 명료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 표준대로 생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제 자녀들도 제 모범을 따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권고를 받았습니 다. 저는 그러한 권고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간중드립니다.” ■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의 활용에 대한 제언들

- 책자에 나오는 주제들을 가정의 밤에 정기적으로 읽고 토론한다.
- 감독이나 지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이 책자를 첫째 주 상호부조회 및 신권 정원회 모임의 공과 주제로 사용한다.
- 가족 구성원들이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 책자를 가지고 다닐 수 있게 권고한다.
- 거기에 나오는 지침들을 기반으로 청소년 활동을 계획한다.
- 거기에 나오는 지침들을 독신 성인 활동의 주제로 활용한다.
- 옷을 살 때나 영화를 고를 때, 또는 활동을 계획할 때 그 지침들을 참고한다.
- 책자에 나온 주제들에 기초하여 정기적인 와드 및 스테이크 청소년 노년의 모임을 가진다.



장밋빛 미래

리아 맥클라나한

“아 직 깨어 있는 사람 있어요?” 내가 처음 이렇게 물었을 때, 두 명이 속삭이는 소리로 아직 잠들지 않았다고 말해 주었다. 몇 시간이 지난 지금, 그렇게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이라곤 침묵밖에 없으니, 아직 잠들지 않은 사람은 이 방에서 나밖에 없음이 분명했다.

그날은 선교사 훈련원에서 처음으로 맞는 밤이었다. 그날 나는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했고, 내 동반자를 비롯해 이탈리아로 가는 다른 새로운 선교사들을 만났으며, 처음으로 훈련원 수업을 들었다.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마음속으로 이렇게 수없이 되뇌었다. 내가 정말 선교사가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비행기를 타고 외국 땅으로 날아가서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가 내게 정말 있을까?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어머니가 래리 외삼촌에 대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다. 래리

외삼촌은 1970년대에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에서 선교

사업을 했다. 처음에 삼촌은

당신의 부족함에 대한

상념으로 며칠 밤 동안 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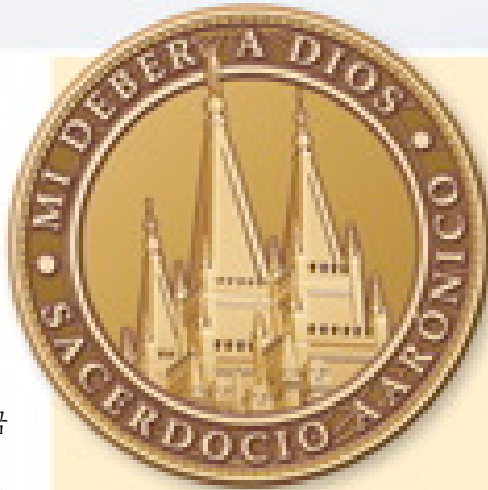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외삼촌은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평안을

간구했다. 주님의 도움으로, 래리



외삼촌은 선교 사업을 끝까지 마쳤고 충실하게 봉사했다.

그 생각을 하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나는 복도를 지나 살금살금 화장실로 가서 어스레한 불빛 아래서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평안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를 마치고 기다렸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더 기다려봐도 내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결국 다시 침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침대에서 다시 잠이 들려고 하는데 응답이 왔다. 영을 통해 밝고 따뜻한 느낌과 함께 내 마음속에는 한 아름다운 장소가 떠올랐다. 순간, 비록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곳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안을 느끼는 가운데 그런 느낌으로 충만해진 나는 잠이 들었다.

영이 장밋빛 미래를 암시해 주었다.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동안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면, 나는 눈을 감고 그때의 느낌을 떠올렸다. 기도와 근면을 통해 나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이탈리아의 제노바에서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부엌에는 발코니로 향하는 유리 문이 있다. 나는 유리 문을 지나 발코니로 나가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 풍경은 낯설지 않았고, 나는 벌써 이 도시를 사랑하고 있었다. 이 풍경은 선교사 훈련원에서의 그날 밤 내 마음에 떠올랐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셨음을 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

변화할 수 있는 기회

앤젤 루이스 산체스 노타리오

내가 교회 회원이 된 지 칠 년이 되었다. 그 동안, 나는 항상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참된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 인생에는 교회에서 그리 활동적이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 문제의 시기는 우리 가족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곳에서 우리가 참석해야 할 집회소 위치를 찾는 데 몇 달이 걸렸고, 실제로 모임에 참석하는 데에는 또 몇 주가 걸렸다. 나는 그런 변화를 겪는 것이 그다지 달갑지 않았고, 몇 주 후가 지난 뒤부터는 모임에 가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와드의 감독님께서 갑작스럽게, 그러나 반갑게 나를 방문하셨다. 감독님은 내가 다시 일요일에 교회 모임에 참석할 것과 세미나리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셨다. 나는 그 권유를 받아들일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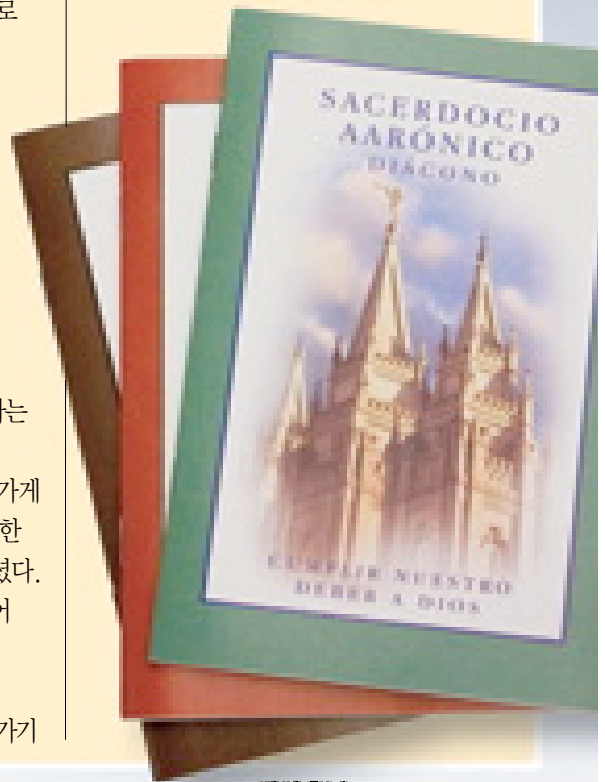
몇 주가 지나 나는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감독님은 내게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다. 그분은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고, 나는 한번 시작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 책자에 있는 목표들을 완수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프로그램이 내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교회에서 더욱 활동적이 되었고 세미나리에 가는 것이 너무 좋았다. 전보다 더 교회의 표준대로 살고자 노력하게 되고 경전과 리아호나를 읽는 것이 좋아졌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나는 선교 사업을 하는 것과 후기 성도 예비 학교인 Benemerito de las Americas에 다니는 것, 그리고 그 밖의 여러 목표들을 세웠다. 지난 가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표창과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고, 이제 곧 선교 사업을 하게 된다.

나는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변화를 통해 그분의 교회의 합당한 회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또한 내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그 프로그램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



항상 노력하십시오

옥타비아노 테노리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집중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하는 일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제가 열다섯 살이었을 때 선교사들이 근처 몇몇 이웃집에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날마다 오가는 선교사들을 보고서 저의 누님은 그들에게 뭔가를 팔러 다니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아니라고 대답했고 그 일을 계기로 저희 가족은 선교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은 선교사 토론을 듣고 모두 침례를 받았지만 저는 교회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다른 교회를 알아보는 중이었으며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5월 10일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그날 어머니께서 제게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물론이죠, 어머니를 사랑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간증을 나누시며 제게 침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그날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고, 그 다음 일요일에 확인 의식과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교회나 특히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에 관한 것이라면 모조리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더 깊이 연구하면서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가운데 제 신앙도 커 갔습니다.

노력을 다함

제 인생의 두 가지 경험담을 전하기에 앞서 제가 선교부 회장이었을 시절에 선교사들에게 이야기해 주곤 했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는 에즈라 태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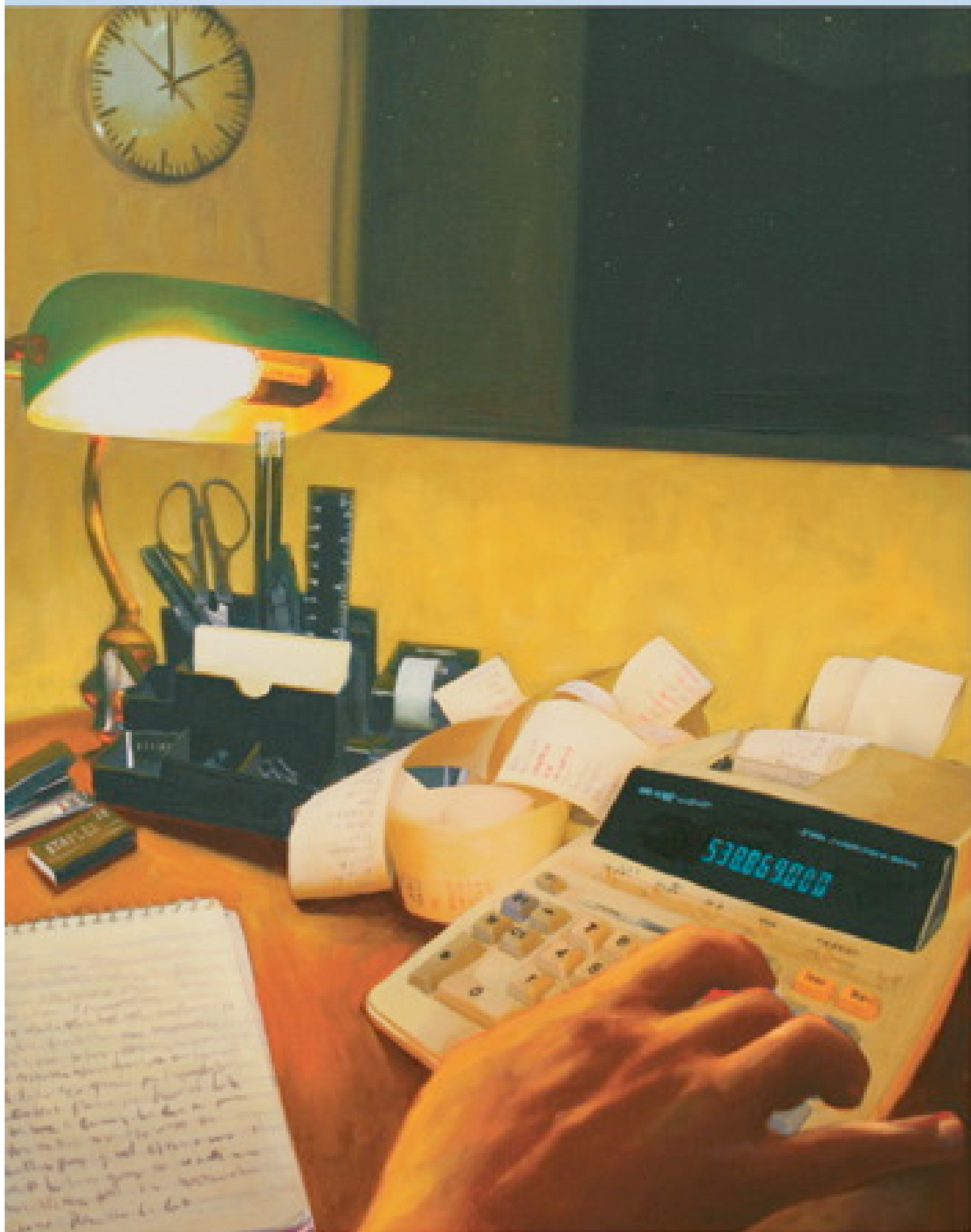
벤슨(1899~1994) 회장님의 다음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나는 종종 선교 사업의 가장 큰 비결 중 하나는 일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선교사로서 일을 할 때, 그는 영을 얻을 것이며, 그가 영을 얻는다면, 영으로 가르칠 것이며, 영으로 가르칠 경우,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향수병이 없을 것이며, 가족에 대한 걱정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간과 재능과 관심이 성역을 베푸는 사업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 일, 일, 특히 선교 사업에서 만족스럽게 일을 대체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¹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가 보급되기 전에 사용되었던 선교 사업 지도서의 스페인어 판에는 일이란 단어가 노력이란 단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외에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관심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집중력은 성공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고 행복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노력은 좋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비결을 제 삶을 통해 체득했습니다. 저는 침례를 받은 직후 큰 정유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에 관한 이와 같은 진리가 삶의 일부가 되었을 때 저는 회사에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연습은 기회를 낳는다

제가 일하던 회사에는 특별히 회사의 실권을 쥐고 있던 한 부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각 부서에게 자신을 도와 재고 조사를 할만한 사람을 두 명씩 차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한 유일한 요건은 회계에 관한 지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직업 학교를 다녔으므로 회계학 강좌 수료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의 상관은 “그 부장님께 가서 재고 조사를 도우러 왔다고 하고 자네가 회계사라고 말씀드리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저같이 젊은 사람을 보낸 것을 부장님이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하는 듯했습니다.

부장님을 찾아가자 그분은 무슨 용무로 왔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재고 조사를 도와드리러 왔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상관이 지시한 대로 제가 회계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장님은 큰 소리로 웃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아 그러신가요? 그럼 회계사 나오리, 제 의자에 앉으시죠. 이 계산기를 사용해서 여기 장부에 적혀 있는 숫자들을 모두 가능한 한 빨리 더해 보시죠.”

저는 한 손가락으로 느릿느릿 셈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의자에서 밀쳐내시며 말했습니다. “자네 도대체 아는 게 하나도 없구먼. 앞으로 두 주 동안 내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똑똑히 보게.”

저는 다른 의자에 옮겨 앉았습니다. 부장님은 “잘 보라고.” 하시며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번개같이 빠르게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일하는 모습을 두 주 동안 관찰하라는 부장님의 말씀이 처음엔 농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진심이었습니다.

첫날 저는 그 의자에 예닐곱 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일이 끝나자 다른 사람들이 모두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후 부장님의 사무실에 들어가서는 종이를 바꿔 끼운 후 그분이 계산하셨던 동일한 항목을 갖고 계산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시간의 연습 끝에 저의 계산은 점점 더 빨라져 갔습니다. 적어도 그분의 속도만큼 빨라졌다는 자신감이 들었을 때야 비로소 한두 시간의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세수만 한 채 열린 정문을 통해 밖에 나갔다가 부장님께서 출근을 하신 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부장님은 “좋아, 자네는 거기 앉아서 내가 하는 일을 잘 보게”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계산기를 다루기 시작했을 때 웬지 체계는 그 동작이 느려 보였습니다. 연속으로 일곱 시간 동안 연습만 했던 저는 부장님께 공손히 제 의자에 앉아 계산 것을 권한 후 엄청난 속도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부장님도 놀라셨습니다.

“자네 어떻게 된 건가?” 하시며 그분은 비결을 물으셨습니다. “자네가 이 기술을 배웠으니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일하세. 내가 아는 것을 모두 전수해 주겠네.”

저는 부서를 옮겼고, 몇 년 후 부장님께서 퇴임하시면서 저를 추천해 주신 덕분에 저는 그분의 후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노력과 집중력을 발휘했으며 제가 하는 일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부장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일에 대해서도 언짢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비결

여러분은 유익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노력과 집중을 기울이고 행복하게 생활하면 됩니다.

제가 몸을 담았던 직장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멕시코시티로 이사를 간 저는 일하기를 즐겼기 때문에 한 국제 출판 회사의 임시직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회사는 제게 재고 조사 업무를 맡겼는데, 그 분야라면 제가 전문이었습니다. 저는 재고 조사를 두

주 만에 끝마쳤으며, 넉넉한 봉급의 정규직으로 일할 것을 원하는 회사의 제의를 받아들여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영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 출신으로 스페인어를 전혀 못했던 회사의 한 이사님이 제 상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친구가 일을 잘한다던 말이야. 영어만 할 줄 안다면 월급을 올려 줄 수도 있을 텐데. 뉴욕에 보내서 훈련만 받으면 여기서 관리직으로 일해도 손색이 없겠어.”

상관으로부터 그 말씀을 전해들은 저는 반문했습니다. “영어만 배우면 된다 이거죠?”

그 당시 저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제 아내는 교회가 설립한 멕시코의 정착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제가 영어를 처음 배우면서 몇 마디를 영어로 말할 때, 제 발음을 들은 어떤 분이 그만하라고 저를 말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영어에 소질이 없었습니다.

승진은 물론이고 뉴욕에도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자극을 받은 저는 외국어 학원에 가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학원 측에서 물었습니다. “영어 얼마나 하시나요?”

전 대답했습니다. “한 마디도 못합니다. ‘안녕하세요’도 몰라요.”

학원 측에서 말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두 주 동안 진행되는 속성반이 있습니다. 여덟 시간은 여기에서 선생님과



수업을 듣고 나머지 여덟 시간은 집에서 테이프를 듣죠. 수업료는 1,000달러입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휴가를 내서 두 주 동안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상관에게 가서 “두 주 안에 영어를 배우겠습니다. 제게 100달러만 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네. 나는 2년이나 걸렸어.”

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사님께 두 주 간의 휴가와 수강료를 지원해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두 주 후에 제가 그분과 영어로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면 수업료를 제 월급에서 공제하셔도 좋습니다.”

그분은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덟 시간에 걸쳐 45분마다 교사가 교체되었으며 단어와 문장 및 대화문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련시켰습니다.

학원에서 여덟 시간을 공부한 후 저는 거리에 나가 영어를 할 줄 아는 관광객들을 찾아 나서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덟 시간 동안 테이프를 또 들었습니다.

제가 학원에 다닌 가장 큰 이유는 영어를 배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관리직에서 일하고 싶었고 또 뉴욕에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제게 이러한 큰 꿈이 있었기에 영어 공부는 어렵지 않았으며 매시 매초가 즐거웠습니다.

장장 224시간의 공부를 마쳤을 때 어느 정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이사님과 그의 구두 면접 시험 결과에 따라 100달러의 지불 여부가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세웠습니다. 바로 제가 배웠던 것 하나 하나를 그분께 전부 말씀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20분 동안 재잘거리면서 그분께는 한마디도 말할 기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네. 이 친구 뉴욕으로 보내.” 그렇게 해서 저는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배움의 기회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집중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하는 일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은 이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것을 배우고 훌륭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힘들더라도 즐기십시오. 선교 사업이든 인생의 어떤 일이든 이와 같이 하십시오. 벤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하고 일하며 또 일하십시오. ■

주

1.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1988), 200쪽.

학

원에서 여덟 시간을 공부한 후

저는 거리에 나가 영어를 할 줄 아는 관광객들을 찾아 나서곤 했습니다. 계산기 연습을 할 때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으십시오



함께 일하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모사이야서 18:21 참조)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랑

피오나 마일

여덥 살과 열 살 난 우리 딸들은 자라면서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다. 항상 사소한 일로 다투고 서로를 흘겨보는 두 딸을 바라보는 것은 어머니로서 가슴 아픈 일이었다.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나는 주님께 내 약함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다. 사랑에 대해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드렸고, 그럴 때면 경전의 아름다운 구절들이 눈에 들어오곤 했다.

어느 날 밤 딸들에 관한 문제가 도를 넘어 한계에 다다랐다.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크게 야단을 쳤고, 그런 뒤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하려고 밖으로 나갔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영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었고, 집에 들어가서 늘 내가 제일 심하게 혼을 내는 큰딸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큰딸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열 살 난 내 딸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딸아이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고는 눈물이 그렇그런한 눈으로 이렇게 말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는 마음을 달래보고자 기도하고 경전을 읽으려 했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는 말다툼 중에 자신이 했던 말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이야기하며 엄마인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우리는 잠시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나는 경전을 펴서 사랑,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모로나아서 7:4-7)에 대한 부분을 딸에게 읽어주었다. 그 때 막내딸이 방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보았고 그 아이도 방으로 불러들였다. 그런 뒤 나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랑에

대해 여덟 살 난 딸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었다.

설명을 마치자 두 딸은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면서 자신들이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이 위대한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었고, 물론이 권고한 바와 같이,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하게 기도드렸다. (모로나아서 7:48 참조)

우리는 영에 감동을 받아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일어나 함께 껴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그 순간 나는 딸들 사이에서 영원한 자매애와 우정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고, 내 마음은 편안해졌다.

그때 이후로 딸들의 관계는 점점 좋아졌다. 아이들은 서로의 차이점을 수용하고, 더 인내심을 보이며, 자기 물건을 나누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아이들의 의로운 소망과 노력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그 경험을 항상 소중히 간직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자애와 사랑의 결속을 계속해서 강화할 때 이와 같은 훌륭한 경험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

우리는 함께 껴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그 순간 나는 딸들 사이에서 영원한 자매애와 우정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의 작은 천국

로젤리 드 올리베이라 리베이로

우리가 1992년 침례를 받은 후, 내 가족은 일요일 모임, 여러 대회, 그 밖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함께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들이 생겼고, 결국 나 혼자만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저활동이 된 것이다. 그 이후로, 누군가 교회에서 영원한 가족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들을 때면 가슴 한쪽이 아려왔고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

1995년에 나는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더 잘 이해하고 또 힘을 얻기 위해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로 결심했다. 내 축복문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금식과 기도와 가정의 밤을 통해 가족이 “복음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나는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금식했지만 가정의 밤을 하라는 권고는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집을 떠나 선교 사업을 나가게 되었다.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문제가 있는 가정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나는 내 축복사의 축복문을 공부하다가 그 가정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다. 그것은 바로 가정의 밤이었다. 사람들에게 가정의 밤에 대해 가르치면서 가족들이 강화되고, 부부가 화해하며, 형제 자매가 화합하는 것을 목격했다. 한마디로, 가정이 작은 천국으로 변모하는 것을 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선교 사업 동안 만난 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왜 내 가족이라고 그렇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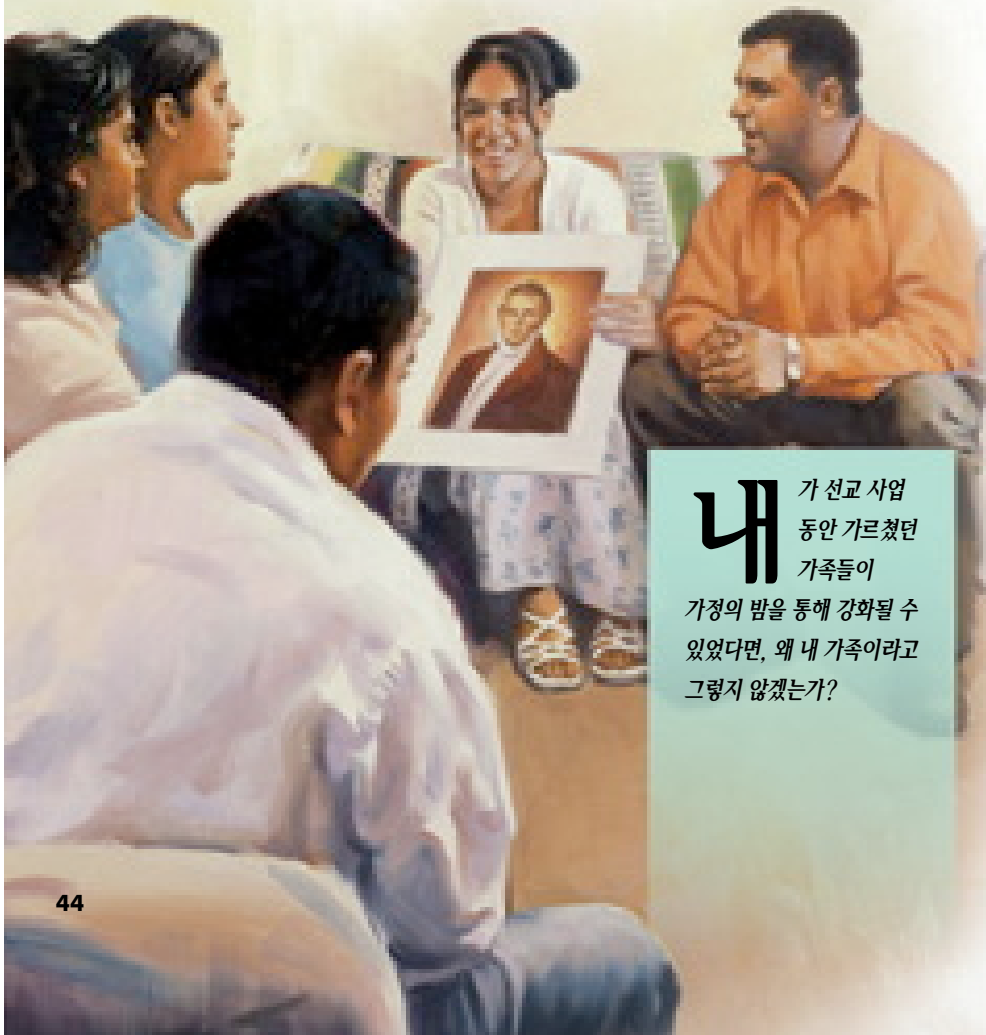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내 가족과 함께 꼭 가정의 밤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마지 못해 참석했고, 계획대로 공과를 끝내기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 되지도 않는 일을 하라고 권고하시지는 않았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내 축복사의 축복문에 나온 약속은 실현되었다.

내가 가정의 밤을 열지 않을 때면, 누군가 가정의 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 가족들은 모두 여러 가지 의견과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참석하며 공과를 주의 깊게 듣는다. 가족 모두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님에도 활동으로 게임을 할 때면 모두들 너무 즐거워한다!

결과적으로 내 가족들은 그 동안 그들이 신경 쓰지 않고 지내던 계명들을 다시 한번 순종하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활동적이 되었다.

모든 가정의 전통이 되어야 하는, 가정의 밤이라는 영감 받은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

내 가 선교 사업 동안 가르쳤던 가족들이 가정의 밤을 통해 강화될 수 있었다면, 왜 내 가족이라고 그렇지 않겠는가?



나는 온전히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있었던 것일까?

캐롤린 알 스펜서

경 전 공부를 잠시 중단해야 했다. 아들 셋 모두가-그것도 평소보다 일찍-잠을 깬 것이다. 이제 18개월 된 막내 케이든이 아기 침대에서 목청껏 울고 있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아기가 아프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고난의 연속인 월요일이 시작되었다. 케이든의 옷을 갈아입히고 밥을 먹이려고 하는데 케이든이 큰 유리 단지를 내던지는 바람에 안에 들어 있던 애플소스가 사방에 었질러지고 깨진 유리조각들이 부엌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 난장판을 치우면서 아직 끝내지 못한 일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았다. 가족 역사, 봉사, 가정 비축, 선교 사업 ...

“기본적인 내 하루 일과도 겨우 마치는 상황에 정작 해야 하는 모든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지?” 하고 나는 생각했다. 초저녁이면 녹초가 되면서도 낙담할 겨를도 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가정의 밤을 하고, 아이들을 씻기고 재운다.

마침내, 아이들이 자는 동안 나는 일어나 앉아 전에는 시간을 내서 해 보려 하지 않았던 어떤 일을 하게 되었다. 나는 2006년 5월호 리아호나를 집어들었고 잡지를 펼치자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의 “어린 아이와 같이”라는 말씀이 보였다. 그 말씀을 읽다가 내가 전에 표시해두었던 한 단락에 눈길이 갔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변화의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것을 읽으면서, 나는 되물었다. “내 가족을 돌보기에도 벅찬데 어떻게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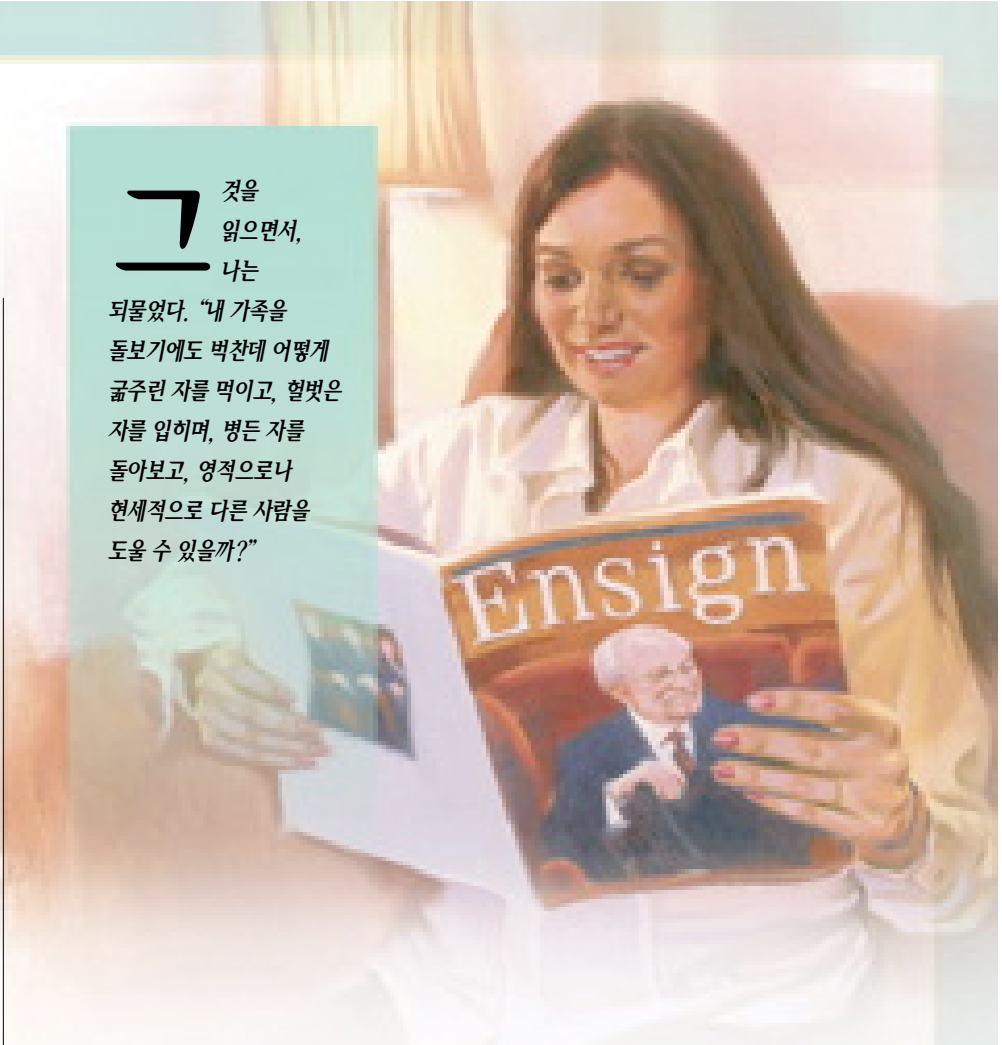
결심과 노력과 신앙이 요구될 것입니다. 베냐민 왕은 최소의 요구 사항을 몇 가지 가르쳤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우리의 죄사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리아호나 및 *Ensign* 2006년 5월호, 17쪽)

그 글을 보자마자, 다시 한 번 나는 내가 온전히 복음대로 생활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되물었다. “내 가족을 돌보기에도 벅찬데 어떻게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강한 느낌이 나를 압도했다. 그 느낌은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하며 실제적이어서 잊어버리기 전에 어딘가에 적어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눈 앞에 내 하루 일과가 스쳐 지나갔다-굶주린 아이들을 먹이고, 아이들이 헐벗지 않도록 빨래를 하며(나는 하루에도 케이든의 옷을 여러 번 갈아입힌다), 아기가 아플 때 돌봐주고, 다섯 살 난 내 아이가 가정의 밤에서 선교 사업에 대한 공과를 준비하도록 돕고, 가족과 함께 모범의 힘에 대해 토론하는 것-그것들은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돕는 것이었다.

그 느낌과 함께 평안이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 넘쳤고, 나는 주님께서 내 노고와 헌신을 받아들이신다고 내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알았다. 내 가족을 돌보면서, 나는 베냐민 왕과 아이어링 회장의 권고를 성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를 성전에 데려다주세요

알레한드로 로블레스 5세

페루 리마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던 어느 토요일 오전, 리마 지역의 한 스테이크에서 온 20여명의 어린이들이 성전을 방문했다. 성전 회장님은 어린이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성스러운 성전 사업에 대해 말씀했다. 그분은 특히 가족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하시며 “영원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셨다.

어린이들은 경건한 태도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곳에 있던 어린이 방문객들 중에는 로시타라는 이름의 다섯 살 난 어린 소녀가 있었다. 그날 밤 로시타는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침대 구석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렸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어린 딸이 아직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로시타는 침대에서 뛰어내려와 아버지 품에 안겼다. 아버지는 로시타를 들어 올려 안아 주었고, 로시타는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뽀뽀를 해주었다.

아버지가 물었다. “우리 딸 로시타, 오늘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아빠.”

“오늘 어른들 말씀 잘 들었니?”

“네, 아빠.”

“아빠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로시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로시타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언제쯤 저를 성전에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게 뭘까? 우리 딸이 바라는 게 뭐지?”

“아빠”, 로시타는 잠시 머뭇거리고는 말했다. “언제쯤 저를 성전에 데리고 가실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는 듯하다가 대답했다.

“너를 꼭 데리고 갈게, 로시타. 지금은 아빠가 열심히 일하느라 좀 바쁘단다. 그렇지만 너를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마.”

“고마워요, 아빠.”라고 말하며 로시타는 아버지를 안고 다시 뽀뽀해 드렸다.

“이제 침대로 가서 잠을 자야지.”

여러 달이 지난 뒤, 로시타의 가족은 성전의 인봉실에 모였다. 인봉 의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큰 기쁨을 나누었다. 아버지는 사랑스럽고 다정하게 자녀를 한

명씩 안아 주었고, 마지막으로 막내인 로시타를 안아 주었다.

로시타의 아버지는 의식을 집행한 인봉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몇 달 전 제 막내딸이 스테이크의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성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은 제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제가 언제 자기를 성전에 데리고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딸 아이가 단지 성전의 걸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저는 제 삶을 정리하고 나쁜 습관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노력해야 했지만, 결국 저는 해냈습니다. 오늘이 제 평생 가장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은 제 가족이 앞으로 영원히 하나가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

십일조가 내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까?

낸시 케이 스미스

큰 아이가 학교에 가고 작은 아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나는 청구서들을 식탁 위에 펼쳐 놓았다. 나는 매달 찾아오는 이 공포스러운 일을 시작하면서 얼마 안 되는 수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했다. 늘 그렇듯이 십일조를 내는 것이 제일 먼저 할 일이다.

젊은 아내요 어머니로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처음 가입했을 때부터 나는 십일조를 낼 결심을 했었다. 그 약속을 지키는 데 망설임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내지 않은 공과금, 용자금, 보험 청구서들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생활비 생각에 깊은 근심에 빠졌다.

지금 나는 여섯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다. 나는 종종 과중한 업무,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어머니이자 아버지 역할을 동시에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내려야 하는 수많은 결정들에 압도되었다. 내게는 이런 짐을 덜어 주거나 지원해 줄 일가친척도 없었다.

식탁 앞에 앉아 주님께 도움과 자비를 구하고 있는데, 성신이 내 시야를 열어 주며 구주의 사랑에 대한 아름답고 위안을 주는 어떤 것을 보여주셨다. 삶의 신성한 우선순위가 내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했고, 나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생활비로 지출해야 할 금액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일조와 헌금을 충실히 바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내가 받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나는 십일조를 바치는 것이 두려움과 근심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랑의 행위가 되어야 함을 알았다.

주님의 영이 내게 가득히 임하는 동안, 나는 오랜 시간 동안 굳건하고 신성하게 지켜 왔던 확신들에 대해 스스로 간증하고 있었다. 혼자 있는 부엌의 조용한 침묵을 깨는 내 목소리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었다.
구주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잃느니 차라리 집에 단수가 되는 편이 낫다.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느니 차라리 먹을 것 없는 텅 빈 식탁을 보며 살겠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빛을 잃느니 차라리 전기가 끊어진 집에서 어둠 속에 생활하는 불편을 감수하겠다.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아이들과 텐트에서 살겠다.

나를 짓누르던 걱정들이 즉시 가벼워졌다. 두려움에서 야기된 약점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극복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요 후원자시며 보호자시다. 그분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제공해 주신다. 그분의 약속들은 확실하며 변하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축복들을 부어 주시고자 우리 수입에 대한 십일조를 내라고 명하신다. 그런 축복들에는 마음의 평안, 세상적 및

물질적인 근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대한 확신도 포함된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분께 그리고 그분을 위해, 망설임이나 두려움 없이 기쁘게 십일조를 낸다. ■

식탁 위에 청구서들을 늘어놓고

나, 아직 내지 않은 공과금, 용자금, 그리고 보험 청구서들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생활비 생각에 깊은 근심에 빠졌다.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여기 나온 제언들은 가정에서만 아니라 교회 공과반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반원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삶의 패턴으로 삼을 수 있는 경전의 일화들”, 16쪽: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사에 나온 형식을 사용하여 읽어 주면서 시작한다. 또 다른 경전 일화를 들려 주면서 “옛날 거기서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찾아 종이에 열거한다. 그 일화가 우리 시대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질문하면서 “지금 여기 나에게” 목록을 작성해 본다. 이런 방법이 개인 및 가족 경전 공부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토론한다.

“정숙함: 우리 모두를 위한 시대를 초월한 원리”, 28쪽: 이 주제는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과를 준비한다. “정숙함이란 무엇인가?” “왜 정숙해야 하는가?” “시대를 초월하는 원리” 부분을 사용하여 정숙함을 설명하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한다. 정숙함이

성신의 동반을 이끈다는 개념을 강조한다. “정숙함과 관련된 축복” 부분에 나온 일화를 말해 주고, 가족들에게 정숙한 복장을 통해 그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받았던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권유한다.

“장밋빛 미래”, 36쪽: 이 이야기를 읽고 가족들에게 용기가 필요할 만한 상황들을 열거해 보라고 한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용기의 개념을 설명해줘야 할 것이다. 친6~7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좋은 예가 된다.) 그 선교사가 어떻게 용기를 얻게 되었는지를 토론한 후, 이와 같은 원리를 가족들이 작성한 용기가 필요한 상황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한다.

“항상 노력하십시오”, 38쪽: 가족들에게 수건을 하나씩 준다. 각자 한 손으로 수건을 등 뒤에서 개도록 하고 누가 가장 빨리 수건을 꺼 수 있는지 본다. 옥타비아노 테노리오 장로의 삶에 대한



이번 호의 주제들

페이지 수는 기사의 첫 페이지를 뜻합니다.

친 = 친구들	봉사, 2, 45
가정의 밤, 43, 48	사랑, 43, 친8
가족, 43, 45, 46, 친4, 친16	성전, 25, 46
가치, 2, 친8	십일조, 47
개중, 37	우정, 26
개척자, 12, 친11	일, 38, 42
경전 연구, 16	재능, 22
게시, 6	정숙함, 28, 친7
교리와 성약, 6	정치, 26
기도, 36, 친6, 친7, 친12, 친14	조셉 스미스, 6, 친12
노래하기, 친14	초등회, 친4
다툼, 43	팔복, 친2
단합, 42	평안, 37, 47, 친2
모범, 22, 26, 33, 친6	표준, 26, 28, 33, 친7
방문 교육, 25	하나님에 대한 의무 원수, 37
	활동화, 2, 37
	회개, 16

일화를 나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었는지 토론한다. 가족들에게 두 손으로 앞에서 수건을 개도록 한다. 전력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를 토론한다.

가정의 밤에서 즐기는 경전 연극

우리의 두 자녀가 취학 전이었을 때, 때때로 자녀들이 가정의 밤에서 너무 산만한 것이 문제였다. 순종에 대한 공과를 계획하던 어느 주에, 아내와 나는 암몬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다. 또한 우리는 그 경전 일화를 들려준 후 그 이야기대로 연극을 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양이 될 만한 동물 인형들을 모으고 종이로 간단하게 검도 만들었다. 아이들은 너무 재미있어 하며 연극이 끝났는데도 계속 해 달라고

했다. 며칠이 지난 뒤 아이들 둘 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떤 연극을 할 거냐고 물었다.

그 뒤로 몇 년 동안, 우리는 가정의 밤에 여러 번 “경전 연극” 순서를 준비했다. 아이들은 우리가 가족 경전 읽기 시간에 경전의 일화를 살펴보고 결정하면 종종 간단한 소품들을 찾거나 만드는 일을 도와주었다. 아이들이 노는 시간에 경전 이야기 가운데 연극을 할 부분을 미리 리허설 하는 것을 본 적도

있다.

늦쇠판을 찾아오는 니파이, 노아의 방주, 골리앗과 맞선 다윗, 개척자들의 이야기 등 여러 주제의 연극을 했다. 우리는 이런 예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복음의 원리들을 설명해 주었으며,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오늘날 우리를 도우시는지 간증할 수 있게 되었다. 스코트 및 코니 무이, 미국 유타 주



후기 성도 취업
자원 서비스는 전
세계의 회원들이
취업원서와 면접
준비에서부터
자영업 기회의
탐색에 이르기까지
취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

© 2008 Robert Casey

단순한 신문 구직 광고를 넘어서

제니퍼 윌리엄즈

후기 성도 취업 자원 서비스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고 있다.

로저와 라소나는 여러 면에서 서로 많이 달랐지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둘 다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로저는

재능이 있었고, 자동차와 항공 우주 산업에 경험이 있는 매우 숙련된 기술자였다. 라소나는 생애 대부분을 집 없이 지냈으며, 두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였고, 또 다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은 후기 성도 취업 자원 서비스를 통해 축복을 받았다.

로저는 훌륭한 경력 덕분에 인정받는 직원이었지만 회사 주인이 바뀌고 25퍼센트의 직원이 감원되면서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는 실직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기술직을 찾기가 어려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전 고용주는 로저가 새 일자리를 찾아 주는 회사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해주었고, 그 회사는 로저에게 그의 전문 기술과 소중한 경험으로 봐서 실직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다. 로저는 성실하게 고용 시장을

찾아보고 이력서를 돌렸지만, 그런 날들이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되면서 낙심하게 되었다. “저는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고 경험도 있는데 그런 기회를 찾지 못해서 몹시 좌절했어요.”라고 로저는 회상했다. 실직 상태로 일곱 달이 넘어가자 퇴직금도 떨어지고 가족 예금도 거의 바닥이 났다.

라소나는 거의 평생 집이 없었지만 최근에 (정부) 보조금을 받는 아파트에 당첨되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집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뻐지만 출산일이 불과 몇 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남편이 그녀를 두고 떠났기에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다.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일자리를 찾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라 걱정하고 있었는데, 더 나쁜 상황은 그녀가 아기를 출산할 때 두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가족도 없었다. “절망적이었어요. 어떻게 가족을 먹이고 자녀를 보살필지 끊임없이 걱정했어요. 저의 짐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울했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예 전의 제 수입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고 대학에 다니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영구 교육 기금을 신청하여 학비 보조를 받을 수 있었지만, 후에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취업 센터를 방문하였고 한 취업 전문가가 구직 계획을 세우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진로 워크숍은 사람들과 접촉하여 효과적으로 인맥을 형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로 워크숍을 마친 바로 그 주에 저는 어떤 다국적 기업에서 면접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워크숍에서 배운 기술의 도움으로 고용주의 질문에 만족스런 대답을 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저는 직업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직장에서 예전 직장보다 네 배나 많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교회의 부름에 더욱 충실하게 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르코스, 브라질



후기 성도 취업 자원 서비스와 진로 워크숍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중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의 교리

일은 복음의 기본 원리다. 아담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음식을 먹으리니”(모세서 4:25)라는 말씀을 받았으며, 이 계명은 아담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1895~1988)은 “일은 경제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¹라고 밝혔다.

우리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이 필요한데도 때로는 적절한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 사는 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인력시장은 더욱 경쟁적이고 더욱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1910~2008)은 다음과 같이 관측했다.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경쟁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²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경제 상황은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실직의 가능성이나 직업 조정의 필요성에 준비되어야 한다.

적절한 일자리를 얻거나 준비하고 있는 회원들과 그 밖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교회는 후기 성도 취업 자원 서비스를 설립했다. 전 세계적으로 대략 300개의 취업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실직자들, 불완전 고용자들 또는 더 나은 경력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로저와 라소냐도 바로 이 센터를 통해 취업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다.

전문 취업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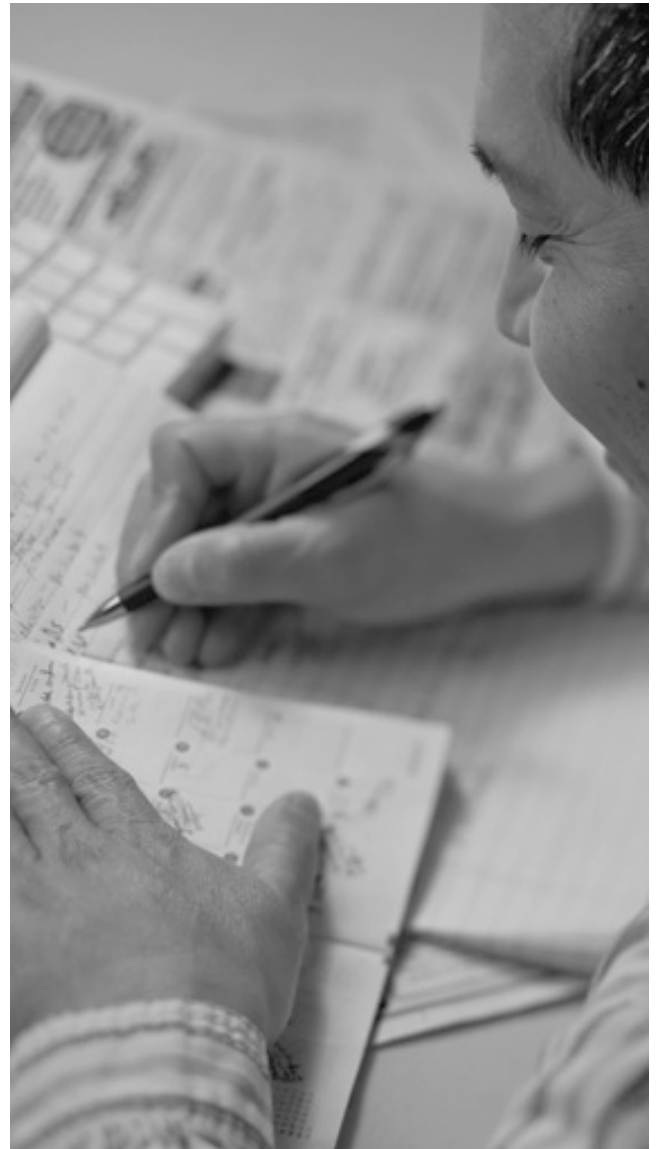
전문 취업 프로그램은 전문직, 경영자 및 관리직이 일자리를 찾거나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진로 워크숍, 정규

네트워크 그룹 모임 및 일대일 지도가 들어 있다. 이 자원들은 전문가, 고용주 및 신규 모집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구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또한 이용할 수 있다.

로저의 힘든 노력을 알게 된 그의 와드 취업 전문가는 그에게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후기 성도 취업 자원 센터의 전문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라고 권유했다. 그 다음 주에 네트워크(인맥 형성) 모임에 참석한 어느 여성은 자신의 제조 회사에서 일할 직원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로저의 훌륭한 기술과 경험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얼마 후에 취업 면접이 있었고, 특별히 로저의 기술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진로 워크숍

진로 워크숍은 직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워크숍을 완수하는 데는 약 12시간이 걸리며 네 가지 부분에서 가르침을 받는다. 워크숍 동안 참여자들은 숨어 있는 인력시장을 찾고, 직업을 찾는 동안 인맥을 형성하는 법을 배우며, 재능, 기술 및 경험을 자신 있게 표현하는 짧고



© 2008 Robert Casey

후기 성도 취업 자원 서비스는 참여자가 스스로를 향상시키도록 도움으로써 직업을 찾는 기회를 넓히는데 기여한다.

힘 있는 자기소개서를 만들어낸다. 참여자들은 이력서 작성, 면접 기술, 경력 계획, 봉급 및 수당 협상에 대해서도 배운다.

라소냐의 삶은 일리노이 주 시카고

후기 성도 취업 자원 센터에서 제공하는 진로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더 나은 삶으로 바뀌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여덟 살 난 두 딸과 함께 여정을 시작했다. 라소냐의 딸, 태티아너는 새로운 지역의 학교에 처음 참석한 날, 선생님에게

“저를 진로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좋은 직장을 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워크숍에 참석하기 전에 직업 제의를 몇 번 받았지만 그들이 제의하는 급여는 매우 적었고 자격요건도 저의 능력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진로 워크숍 과정을 이수하자 자신감이 커졌고 좋은 직장에서 면접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면접관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었고 장래에 승진할 기회와 함께 많은 급여를 제의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감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여 더 큰 성취를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자야, 인도

“저는 나이도 많고 기혼자이며 직장생활을 안 한지도 한참 되었는데 그럼에도 고용이 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진로 워크숍에서 면접관이 저의 배경에 대해 불리한 점을 질문할 경우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온종일 면접을 치른 후에 채용되었고 일요일에는 일하지 않는다는 협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알레네, 필리핀

엄마가 병원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와 있을 동안 자신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회 회원인 반 친구 에밀리가 어머니 팸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물었다. 얼마 안 있어 팸과 라소냐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라소냐는 교회의 취업 자원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되었다.

진로 워크숍에서 라소냐는 취업 전문가로부터 취업 지도를 받았다. 취업 전문가는 그녀가 자신의 재능, 관심, 취업 필요사항 및 직업 목표를 파악하도록 도왔다. 그들은 함께 구직 전략을 세우고, 라소냐의 다양한 기술이 돋보이도록 이력서를 손질하고 여러 부 만들어서, 취업 면접을 준비했다.

라소냐는 이렇게 회상했다. “저는 언제나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일했지만 후기 성도 취업 서비스는 저의 재능과 관심사를 활용하는 취업 기회를 찾도록 가르쳐 주었어요. 나중에 제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얻게 되자 저는 더욱 행복해졌고 자신감도 커졌으며 아이들에게도 엄마 노릇을 더 잘하게 되었어요.”

라소냐는 며칠도 안 돼서 의료 사무실에서 일자리를 찾았으며 그 일을 통해 가족 부양뿐만 아니라 큰 만족감까지 얻을 수 있었다. “저는 훌륭한 친구가 되어준 팸에게 감사드려요.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친절하 그녀 덕분에 저는 후기 성도 취업 자원 서비스를 소개받았어요. 그녀의 친절은 저와 제 아이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 놓았어요.”라고 라소냐는 말했다.

자영업

자영업 워크숍은 개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크고 작은 성공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일련의 과정이다. 이 과정은 기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 자신의 사업 계획을 발전시켜 사업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이 워크숍은 사업 아이디어, 시장 분석, 시장 전략, 재정 분석 등의 네 과정으로 나누어지며, 그 원리는 어디에서나 적용될 수 있다.

케냐, 나이로비의 한 부부는 안정된 직장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고전해 왔다. 자녀에게 생필품을 제공하는 문제는 이 부부에게 커다란 스트레스였다. 대부분의 그들의 친구와 가족들도 같은 곤경에 처해 있었으므로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어 보였다.

최근에 교회로 개종한 남편은 어느 일요일 교회에서 나이로비에 있는 후기 성도 취업 센터를 통해 무료로 취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 다음 월요일에 그곳을 방문했다. 그 이후 몇 주에 걸쳐 여러 직업 및 소규모 사업 워크숍에 참석한 후, 그는 자신의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 파는, 소규모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취업 전문가의 도움으로, 그들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 일을 시작했다. 좁은 주방에서 아내는 맛있는 사모사스와 만다지스 등의 지역 요리를 준비하여 근처에 있는 사무실용 빌딩 밖에서 아침 식사로 팔았다. 만들어 놓은 음식은 금세 팔려나갔고, 그렇게 아침 식사를 팔아 번 돈은 다시 점심 식사 재료를 사는 데 쓰였다.

오래지 않아 그들의 사업은 번창했고 그들의 음식이 인기가 있게 되자 큰

사무실 빌딩의 직원들에게 음식을 대는 계약을 따냈다. 그들은 점차 냉장고와 음식을 데우는 식탁과 사업을 향상시킬 그 밖의 비품들을 구입할 충분한 돈을 저축할 수 있었다. 그들 부부는 이제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된 것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 수익과 수요가 늘어나서 일손을 구할 수 있게 된 두 부부는 와드의 다른 회원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창출해 주었다.

효과

2007년 후기 성도 취업 자원 센터는 직업 훈련, 교육, 직업 개선, 자영업 훈련을 통해 22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했다. 그러나 직업 개선보다 더 중요한 점은 후기 성도 취업 자원 센터가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개인과 가족들이 희망과 평안과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플로리다 주 올랜도 후기 성도 취업 자원 센터 관리자인 글로리아 퍼셀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직장이 온 가족에게 자신감을 키워 주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업 자원 센터에서의 자원봉사 기회에 관해 알아보려면 가장 가까운 센터에 연락하거나 방문한다. 취업 자원 센터에서 전임 또는 시간제 교회 봉사 선교사로 봉사하려면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 이야기한다.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류 김볼, 118쪽.
2. “청소년들을 위한 선지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7년 4월호, 30쪽.

“저는 자영업과 소규모 사업 위크숍에 참여했는데, 그것은 저의 사업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소규모 용자와 그 기회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한 가지 제품을 더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지출과 소득과 생산량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으며,

또한 제 제품에 더 합리적이고 좋은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이 위크숍 덕분에 제 사업이 번창해져 새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 삶은 진과 달리 중요하고 성공적이며 제 가족 또한 더 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엄, 아르헨티나

교회, 개인 발전 프로그램에 덕의 가치관을 추가해

김벌리 보웬, 교회 잡지 기자

교회는 2월, 덕성을 하나의 가치관으로서 청년 개인 발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추가 지침을 LDS.org에 게시했다. 제일회장은 2008년 11월 28일 자 서한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에 추가되는 8쪽짜리 삽입 내용에는 경전, 모토, 덕 가치관 경험 및 덕 가치관 활동 지침, 덕 가치관의 색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덕성을 나타내기 위해 선정된 성구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잠언 31:10)이며, 선정된 모토는 “나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며, 순결하고 합당하게 생활하겠다. 높은 도덕 표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겠다.”이다. 덕성을 나타내는 색깔은 금색이다.

청녀들이 순결과 덕의 의미 및 중요성과 유덕한 생활에서 비롯되는

축복들을 이해하도록 돕는 네 가지 가치관 경험들이 요약되어 있다. 이 경험들은 또한 덕성이 어떻게 청녀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성신의 동반과 인도를 받으며, 합당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약을 맺고 지킬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는가를 청녀들과 어머니들과 지도자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가치관 경험은 청녀들이 경전에서 선정된 교리를 공부한 후 배운 것들과 유덕한 생활을 하기 위해 맺는 서약을 일지에 적도록 독려한다. 회개와 성찬의 중요성 또한 유덕하고 깨끗하게 되는 의미로서 강조된다. 본부 청년 회장단은 “이 경험들은 청녀들이 덕의 의미를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라고 말했다.

네 가지 덕의 가치관 경험을 완수한 후에 청녀들은 덕 가치관 활동을 완수한다. 이 활동은 물론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 가르침을 자신의 생활과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활동에는 청년들의 생각을 정기적으로 일지에 기록하는 것이 포함된다. 물론경 읽기를 마치면 삽입지에 나와 있는 페이지에 자신의 간증을 적는다.

본부 청년 회장단은 웹사이트를 통해 “우리는 모든 청년가 매일 물론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청년들의 간증은 물론경을 읽을 때 강화될 것입니다. 이 간증을 키우는 것은 청년가 인생의 도전에 직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에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한다.

이 삽입지는 2009년 8월까지 28개 이상의 언어로 이용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55개 언어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 후 다음 번 개인 발전 기록부가 인쇄될 때 그 부분이 포함될 것이다. 신권 지도자들은 배우 센터에서 모든 청년을 위해 삽입지를 주문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받게 된다.

2009년 3월 6일자 서한에서 본부 청년 회장단은 개인 발전을 완수하지 못한 청년들은 청년 표창과 증서를 받기 위한 기타 요건에 덕 가치관 경험 및 활동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웹사이트에서 본부 청년 회장단은 2009년 전반에 걸쳐 청년들이 예전의 요건에 따라 표창을 받거나 또는 새로운 덕 가치관 경험과 활동으로 표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모든 청년가 새로운 요건을 완수하고 싶어 한다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지도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각 청년에게 효과를 발휘하게 하라는 권유를 받는다.

이 서한은 이미 청년 표창을 취득한

청녀들에게도 덕의 가치관을 위한 요건을 완수하도록 권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어머니와 지도자들도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인쇄가 가능한 영어 pdf 문서는 YoungWomen.lds.org를 방문하여 Personal Progress Content for Young Women Value of Virtue를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행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 개정된 개인 발전 기록부 및 달성 증서도 이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주

1 youngwomen.lds.org로 가서 “Personal Progress Content for Young Women Value of Virtue” 아래의 implementation instructions를 선택하여 “Frequently Asked Question”를 참조한다.

신임 선교부 회장들, 봉사를 시작해

제 일회장단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104명 중 대부분의 신임 선교부 회장과 그 부인들이 2009년 7월 1일 전후로 봉사를 시작했다. 해당 선교부 및 선교부의 신임 회장은 다음과 같다.

선교부	신임 회장
한국 서울	이용환
그리스 아테네	크리스토퍼 찰스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발표 예정
노르웨이 오슬로	아르망 두에인 요한센
네브래스카 오마하	마이런 포스터 쿤쯔
뉴욕 뉴욕 남	윌리엄 헨리 넬슨
뉴욕 뉴욕 북	리처드 프레드 스미스
도미니카 공화국 산티아고	미구엘 알프레도 리 브루노
독일 베를린	제이 더글러스 피멘텔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존 찰스 트레조

러시아 로스토프나두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비치 네치프로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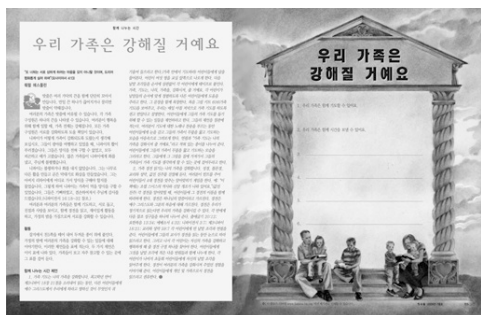
러시아 모스크바 서	케네스 머서 올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마이클 스티븐 프랫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브루스 하워드 울커트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선 에드먼드 러셀 돈리
마살 제도 마주로	브래들리 제이 스미스
모잠비크 마푸토	로런 블레이크 스펜더브
몬테나 빌링스	래리 학비 가드너
매사추세츠 보스턴	윌리엄 톤리 에번즈
메릴랜드 볼티모어	앨마 브렌트 벨리스턴
멕시코 과달라하라	라자로 사우시도 소사
멕시코 과달라하라 남	존 더글러스 제스퍼슨
멕시코 몬테레이 웨스트	브렌트 웨인 롬니
멕시코 멕시코시티 남	아론 차베스 카르피오
멕시코 에르모실로	세르지오 벨레즈 차베스
멕시코 쿠에르나바카	앨런 스파나우스
멕시코 탐피코	스탠턴 린 콜
불가리아 소피아	제롤드 로스
브라질 벨렘	호세 클라우디오 푸르타두 캄포스
브라질 벨로리존테	이달손 데 파울라 파렐라
브라질 살바도르 남	헬톤 카로스 피멘타 베키
브라질 상파울루 이스트	
	호아킴 호르헤 올리베이라 모레이라
브라질 쿠파이바	클레토 핀헤이로 데 올리베이라
브라질 테레지나	마리오 아파레이시도 디아스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북	에디슨 페이번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남	커티스 프로이드 스웬슨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세르지오 루이스 크라스노셀스키
베네수엘라 바르셀로나	에드가 로페즈 델가도우
벨기에 브뤼셀/네덜란드	
	스콧 맥드널드 브루베이커
사우스 다코타 래피드시티	제이 글렌 레이튼
서인도제도	플로드 레미 가미에트
스위스 제네바	켄트 하이럼 머독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게리 킹 그리피스
스페인 마드리드	제임스 스탠포드 왓킨스
스페인 바르셀로나	클라크 브라이언트 힝클리
스페인 빌바오	리처드 리드 클레그
싱가포르	터렌스 앤드류 클라크



이 달에 전 세계 100개 이상의 선교부에서 선교사들이 신임 회장을 맞았다.

아르헨티나 네우겐	다윈 프란츠 피터슨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아르헨티나 바이아블랑카	호르헤 에스테반 데트레프센	어네스토 안토니오 다 실바 본홀트
아이다호 포카텔로	스cott 더블류 콜튼	우크라이나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하드와슨 커빙 조셉	인도 뉴델리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다윈 딘 소렌슨	일리노이 시카고 북
오클라호마 털사	리처드 에드거 머클리	일본 도쿄
온두라스 코마야구엘라	마누엘 안토니오 플로레스 바트레스	일본 후쿠오카
		영국 런던

영국 런던 남	리얼 에릭 샤모우
영국 버밍햄	존 찰스 옥든
유타 옥든	리처드 브렌트 올슨
유타 프로보	날 에드워드 핏츠
워싱턴 디시 남	조지 마크 올브라이트
워싱턴 스포캔	스탠리 마크 팔머
자메이카 킹스톤	릭 그래프
중국 홍콩	사이먼 유-상 찬
조지아 애틀랜타	스티븐 호머 새터필드
짐바브웨 하라레	에드워드 듀브
칠레 비냐델마르	리처드 윌리엄 길레스피
칠레 산티아고 동	래리 로버트 레이콧
캄보디아 프놈펜	스cott 브런스 스메들리
캐나다 캘거리	앨런 리 아치볼드
캐나다 할리팩스	크레이그 윈저 심슨
캘리포니아 오글랜드	데이비드 게리 웨이드
캘리포니아 샌페르난도	제럴드 린 마틴
캘리포니아 산타로사	조나단 웨인 벅커
코스타리카 산호세	샘 미노 갈베스 오렐라나
콜롬비아 보고타 북	조셉 그랜트 핵킹
콜롬비아 보고타 남	휴스토우 포시데스 카사블랑카
콩고 킨샤사 민주 공화국	마이클 스티븐 헤들리
타이완 타이페이	테렌스 일라이얼 그림리
태국 방콕	마이클 쉐로드 스미스
텍사스 휴스턴 남	그레고리 마크 세일린
파라과이 아순시온	마크 제임스 켈런
파푸아뉴기니 포트 모어스비	밀리울라 미퍼 파타
페루 리마 중앙	스티븐 헌터 타일러
페루 리마 남	로저 크리스텐슨 매닝
페루 피우라	존 젠슨 치프먼
펜실베이니아 해리스버그	발표 예정
포르투갈 리스본	모로나이 빙 토건
포르투갈 포르투	찰스 웨슬리 월턴
필리핀 라오아그	앨리스테어 브루스 오저스
필리핀 바기오	토마스 헨리 젠슨
필리핀 바콜로드	조지 하비에르 터바이어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레이 스코트 보먼
호주 에이들레이드	크레이그 키드 포울턴
호주 시드니 남	제프리 테드 시몬스



2009년 7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9년 7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부합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친구들의 친 4쪽과 친5쪽에 있는 “우리 가족은 강해질 거예요.”를 참조한다.

1. 가정의 밤은 우리 가족을 강화시킨다. 손에 막대기를 한 움큼 쥐다. 그 중 한 개를 반으로 부러뜨린다. 막대기를 모두 함께 끈으로 묶는다. 함께 묶인 막대기들을 부러뜨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보여준다. 어린이들에게 막대기는 가족의 구성원들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우리가 혼자일 때는 가족이 함께 할 때만큼 강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가정의 밤은 가족을 하나가 되게 하고 강하게 하는 끈과 같다고 설명한다. 어린이들에게 성공적인 가정의 밤이 되도록 그 계획을 돕고 가까이 참여하도록 가르친다.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가정의 밤에서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어린이들이 첫번째 시현을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시각 자료를 만들게 한다. (예: 그림, 오려내기 또는 손가락 인형. 아래 자료 참조) 어린이들이 준비한 시각 보조 자료를 사용해서 첫번째 시현을 간략하게 이야기한다. (조셉

스미스-역사 1:5~20 참조) 그런 다음 어린이 한 두 명에게 자신의 시각 보조 자료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해 보게 한다. 가족을 강화시켜 주는 가정의 밤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한다. 어린이들에게 다가오는 가정의 밤에서(부모의 허락을 받아) 그 이야기를 하도록 권유한다.

나이가 많은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소책자의 “복음 학습 및 복음 생활” 아래에서 두 번째 활동을 참조한다.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 시각 자료: 너희 어린 자들을 보라(유아반 교재) 제21과,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 리아호나, 2001년 2월호, 친구들, 2~3쪽.

2. 안식일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킬 때 가족이 강화된다. 작은 종이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적어서 미리 용기에 넣어 둔다. 함께 나누는 시간을 시작하기 위해 어린이들에게 출애굽기 20장 8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설명한다. 어린이들에게 교리와 성약 59편 9절을 읽는 동안 그 축복들 중 하나를 잘 들어보라고 한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시지요?”(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힘을 약속받는다고 강조한다. 종이기가 들어 있는 용기를 보여주고 각 종이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이 적혀 있다고 설명한다. 어린이들에게 요일들을 세계 한다. 한 어린이가 “일요일”이라고 말하면 그 어린이에게 용기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고 그 활동을 몸짓으로 표현하여 다른 어린이들이 알아맞히게 한다.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한다. 안식일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우리 가족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간증한다. ■